

이 책의 사용법

□ 활동의 구성철학과 방향

청소년 국제교류준비활동 수련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하나는 청소년들이 해외여행등 국제교류활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다른 하나는 국제교류의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를 내면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교류가 청소년들 일부에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점차 다수의 청소년들이 체험하게 될 활동체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흥미롭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화와 시나리오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 수련거리는 청소년이 국제교류를 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상황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5개 과정의 순차적 단위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각 단계마다 청소년이 상호교류하여 터득하고자 하는 내용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국제인으로서의 자세를 활동프로그램화하고 있다. 이 5개 과정은 우리 청소년과 같은 또래의 외국 청소년과의 교류준비에 따른 이해부터 어른들을 둘러싼 사회 그리고 국제교류의 주요한 단위가 되는 국가를 비롯하여 궁극적으로 인류공동의 목표에 대한 상호이해의 방법을 모색하는 교류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개인적인 수준의 교류활동에서부터 국가간의 광범위한 교류활동에서의 태도와 자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각 과정별로 외국 또는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에 앞서 우리의 청소년과 어른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이해하는 활동을 기초에 놓음으로써 청소년들이 주체적 의식을 갖고 국제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교류를 준비하면서의 예비과정을 통해 국제교류활동에 앞서 해외여행을 위한 필요한 지식을 만화의 형태로 담고 있으며, 가상적인 세계여행활동을 간단한 시나리오로 표현한 마치면서의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한편, 중요한 체험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활동의 구성 및 내용

청소년 국제교류준비활동은 연속되는 5개의 과정 및 준비와 마무리의 과정 등 총 7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준비하면서 : 국제교류활동에 필요한 예의 및 세계인으로서의 자세를 만화로 표현한 활동
- 2) 청소년과의 만남 :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 권리, 책임, 자세, 태도 등을 습득하여 응용하는 활동
- 3) 어른과의 만남 : 우리를 비롯하여 각국 사람들의 성품과 성향 그리고 민족적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
- 4) 사회와의 만남 :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문화, 풍습,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활동
- 5) 국가와의 만남 : 각국의 역사와 국민들의 역사의식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대한 이해활동
- 6) 지구촌 한가족 :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인류평화이념에 대한 국제적 안목을 키우는 활동
- 7) 마치면서 : 구체적인 모의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는 종합활동

준비하면서와 마치면서의 과정을 제외한 각 기본과정의 구성은 2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프로그램마다 개요와 목적 그리고 3~4개의 구체적인 단위활동으로 짜여져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시 유의사항과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단위활동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활동의미 : 각 단위활동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 활동방법 : 각 단위활동에 적합한 강의, 토론, 게시, 워크샷, 게임 등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 ▶ 활동과정 : 각 단위활동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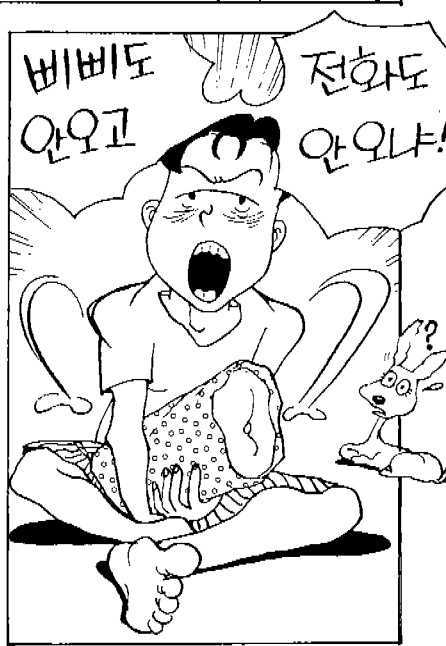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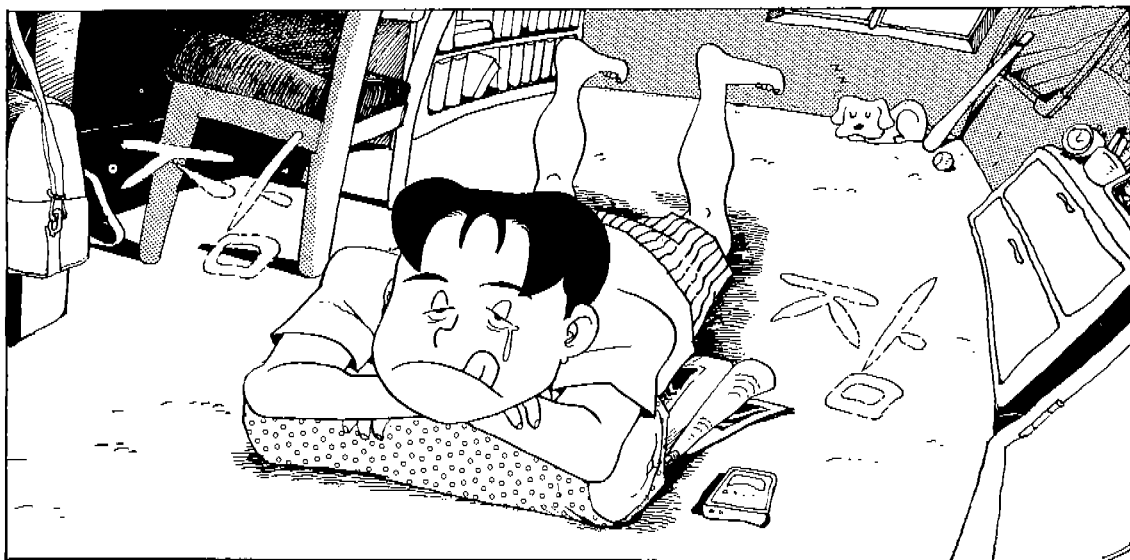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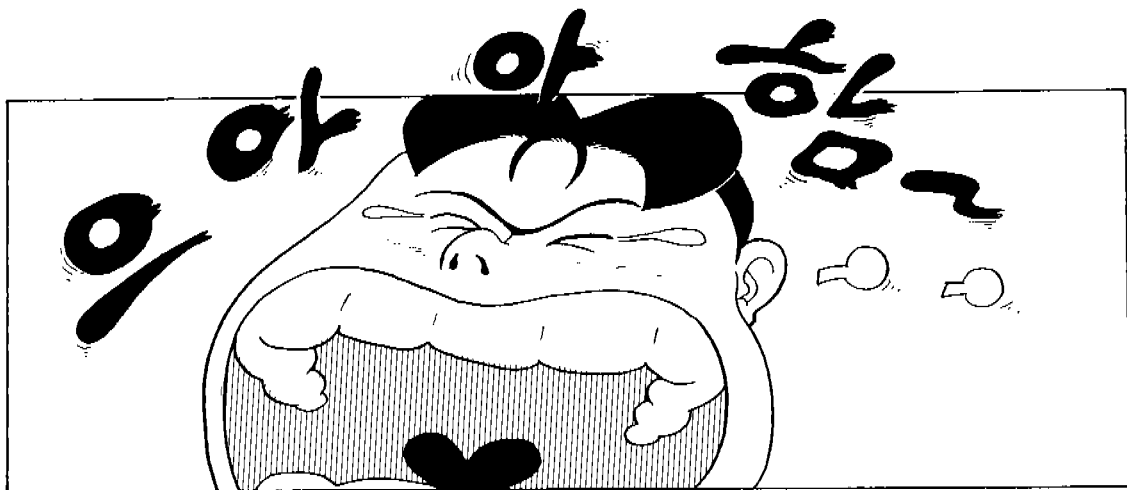
□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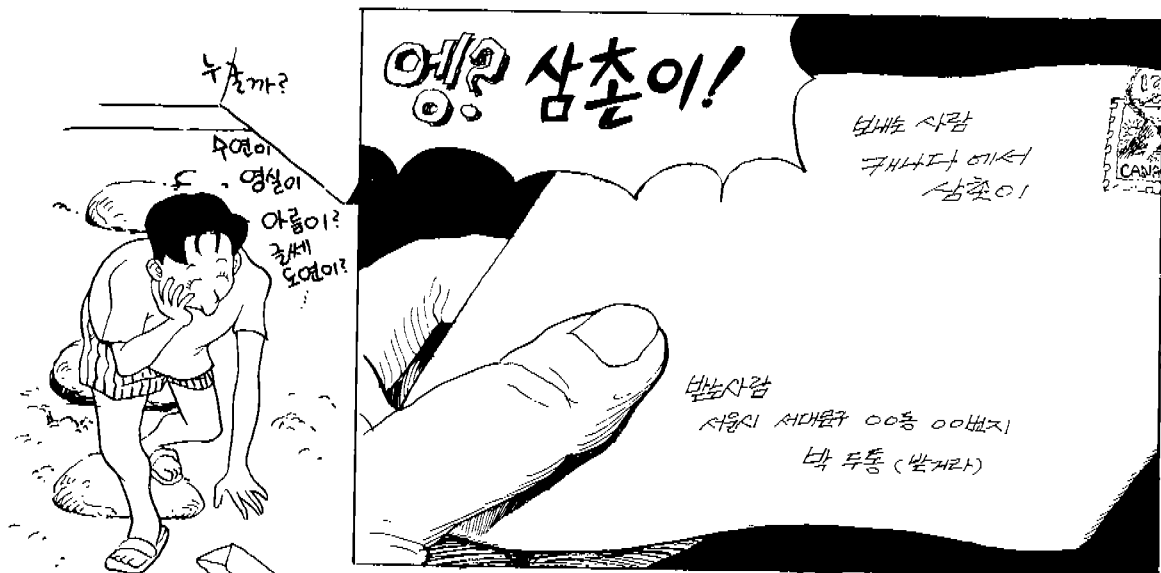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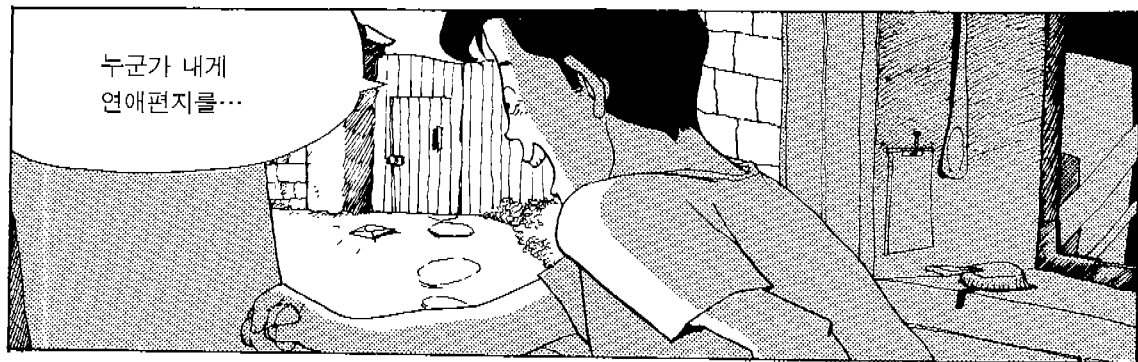
이 책은 3가지 측면에서 국제교류준비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첫째는 국제교류에 따른 생활예절과 태도 그리고 국제인으로서의 자세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정보중심의 인식활동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둘째는 5개의 연속된 과정을 통해 국제교류활동에 기초적 소양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활동프로그램화하고, 셋째는 모의여행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문제를 가상 시나리오로 해결하여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활동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직접 실행해 보는 수련거리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각 단위마다 국제교류의 기초가 되는 각종의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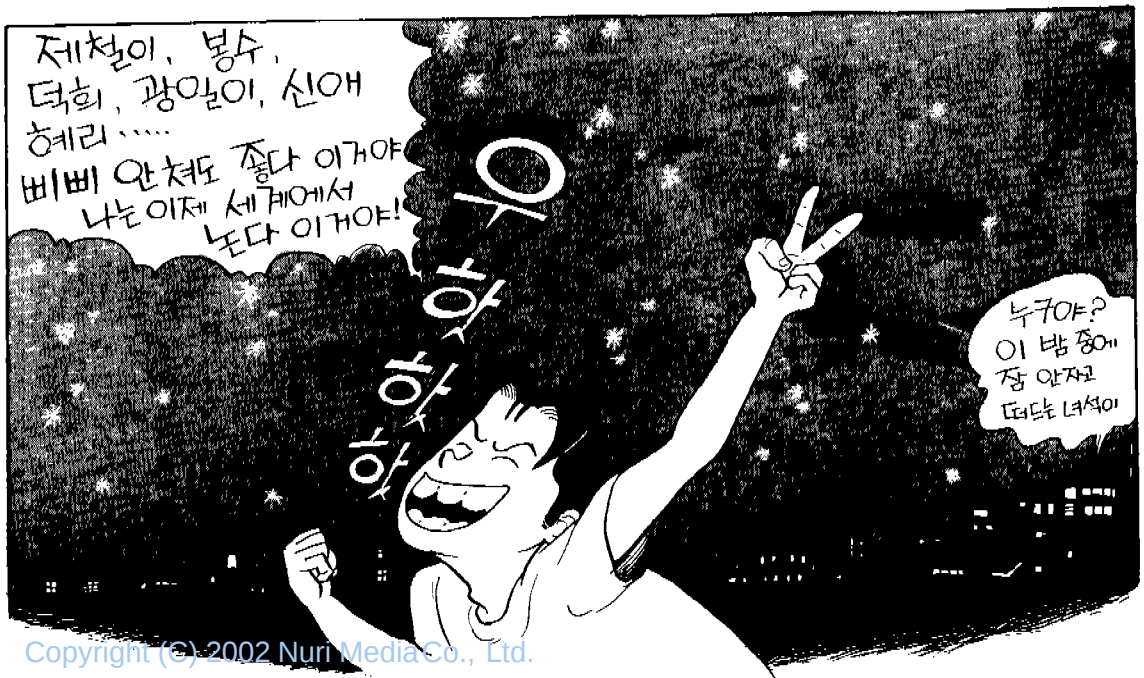
이 책은 인식-이해-활동의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들이 획일된 프로그램형태가 아닌 동일한 맥락속에서 다양한 활동형태와 방법을 만남으로써 보다 폭넓은 사고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행동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두둥이의 세계여행









1 여권·비자

해외 여행 준비 시작!

먼저 여권과 비자를 챙겨야지요

● 여권이란?

여권이란 출국허가증이자 해외체제중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이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 여권신청에 필요한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여행사에서
대행해 주기도
한다.



● 비자(VISA)란?

비자란 여행할 나라의 입국허가증이다.
비자는 방문국 해외공관에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첫단계가
완료됐군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비자가 필요한 나라 :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 :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태국, 독일, 싱가포르 등

자- 이제
내가 타고갈 비행기를 알아봐야지.
여보세요 ○○항공사죠.
토론토 가는...

- 항공편 예약
항공편 예약은 출발날짜,
목적지, 항공기등급, 항공편명을
명확히 말하고 이름과 연락처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출발 3일전에 예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둡니다.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이제
뭘 할까?

여행준비물
도 챙기고
또 방문할
나라와 도시에 대해
공부해 두면
좋겠지?

옷과, 비상약,
우산, 모자
여권 가방등도
미리 챙겨둬...

승리한
캐나다가
이렇게 해서
생긴
나라가
여기 공부
즐거워!

출국 전날

나 외국 간다.

여석들
배 좀 아파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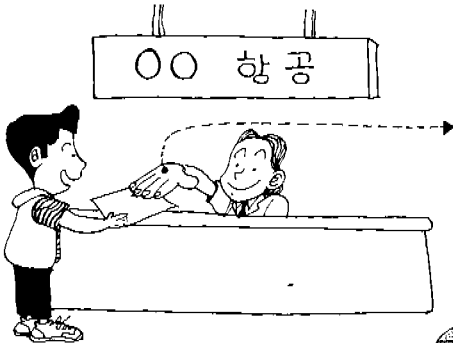
아아니
그럴리가...

3.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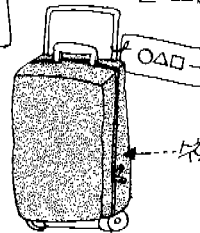
집을 꼼꼼히 챙겨서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에는 비행기 출발시간 2시간전에
도착해서 출국수속을 밟는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여권, 항공권, 출국신고서를
제시하면 예약확인과
함께 좌석을 지정한 탑승권을 받는다.

그리고 수화물을 탁송하고 수화물표는
잘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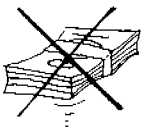
수화물 표시번호

수화물은 보통 1인당 20kg까지

● 세관신고

출국시 고가품이나
고가품은 출국전 세관에 휴대품
반출신고를 한다.

재반입해야 하는



난 과가품이
없으므로
그냥 통과!

Immigration

여권, 비자,
출국카드,
항공기탑승권을
제출하면
출국스탬프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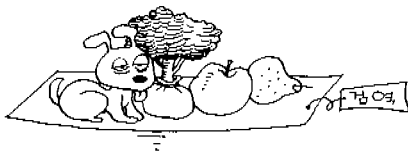


출국심사

검역

일반적으로 특별한
법정 감염지역외에는 생략한다.
하지만 음식물, 과일 등은 반드시 검역
해야 한다.

드디어
비행기 탄다!!



항공기 탑승



5. 입국 수속

Immigration



비행기에서 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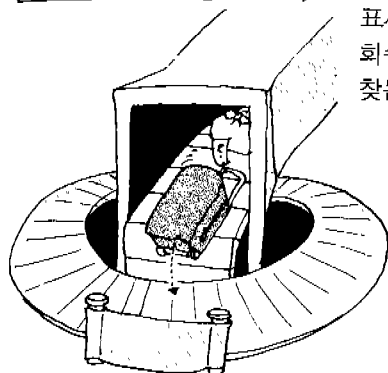
입국심사장으로 간다



입국신고서

입국신고서와
여권을
제출한다.

△존 △X□



입국심사를 마치면
타고 온 항공기가
표시된 수화물
회수대에서 짐을
찾는다.

세관 검사대



마약이나
총기류가
없으면 통과

밖으로 나온다

삼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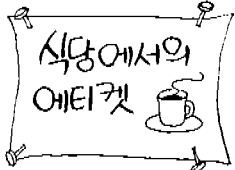
오~
도동이야!



두둥! 너도 알겠지만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그 나라의 예절과
문화를 존중해서
행동해야 되단다.

네!
그걸 에티켓이라고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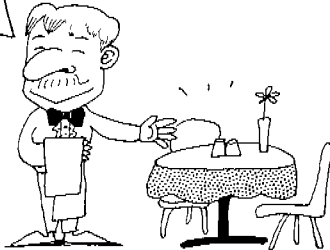
해외 여행시 에티켓



여깁니다
손님

- 아무 자리나 마음대로
골라 앉지 말고 종업원이
안내하는 자리에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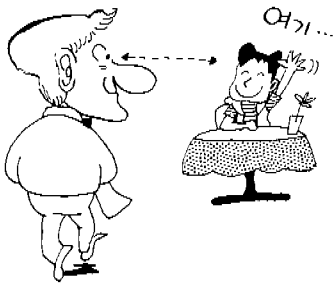
- 식사주문 후 빨리 가져오라고
독촉하지 않는다.



- 종업원을 부를 때 종업원의
몸을 킁드리거나 큰 소리로
부르지 말고 종업원과 눈을
미주치거나 살짝 손을 든다.

- 음식물을 씹거나 마시는
소리를 내지 말 것
이쑤시개는 들고 돌아다니지
말 것
대화는 조용히 할 것

- 테이블 밑에서 신발을
벗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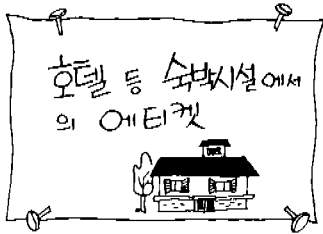


- 식당의 음식이 입맛에 안맞는다고
해서 싸가지고 간 김치나 음식을
풀어놓고 먹어서는 안된다.

- 호텔식당이나
고급식당, 만찬에
초대받은 경우에는
정장을 하도록 한다.

- 여성의 경우 테이블에서
화장을 고치면 안된다.





숙박시설은
예약을 한 후 이용하고
예약 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반드시 예약취소를
통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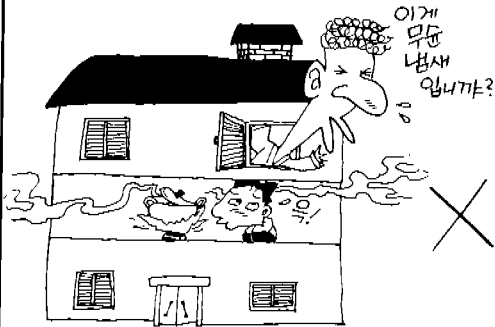
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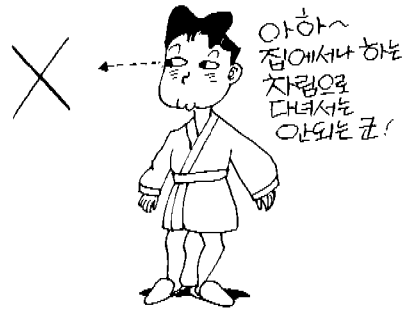
예약 취소



- 객실에서 김치, 고추장 등 냄새 나는 음식을 꺼내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등의 취사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잠옷이나 내의 차림 또는 야하거나 점잖지 못한 차림으로 호텔내를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고 객실용 슬리퍼나 맨발로 객실 밖을 나다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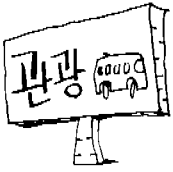
- 객실내에서 밤 늦게까지 음주, 가무, 고스톱 등은 하지 않도록 한다.



- 호텔종업원을 하인 다루듯이 함부로 대하거나 우리말을 모른다고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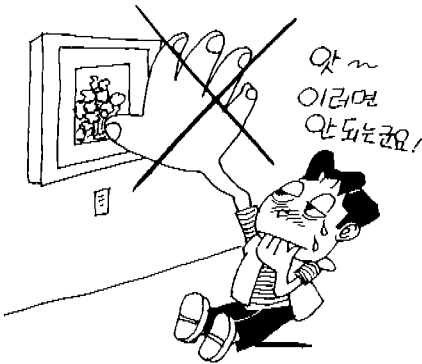
- 관광정보를 입수해서 관광을 보다 알차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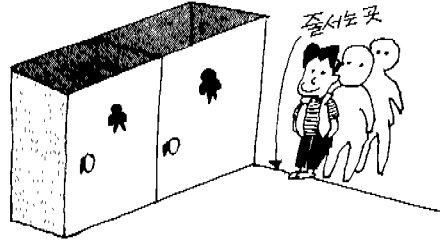
현지에서
유익한
관광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곳들

- ☆ 공항내 관광안내소
- ☆ 시내관광 종합안내소
- ☆ 호텔 안내 카운터
- ☆ 여행사 데스크

-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물, 관광지의 문화재 등에 손을 대지 않는다.



-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앞사람의 바로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간에서 기다리다가 순서대로 먼저 빈 곳을 사용해야 하는 것에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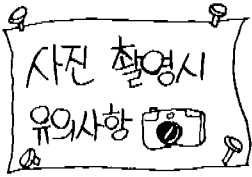


- 길에서 침을 뱉거나, 방뇨, 휴지 등을 버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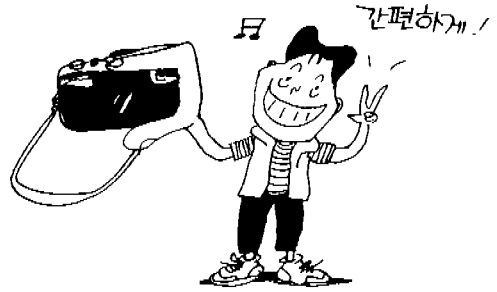


- 노출이 심하거나, 야하거나, 단정치 못한 옷차림은 현지인에게 나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성범죄 유발요인이 되므로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한다.





- 초심자도 실수하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자동카메라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 나라마다 사진촬영을 금하는 곳이 있다. 군사시설, 항만, 공항, 철도, 다리, 주요건물, 박물관내의 문화재 등은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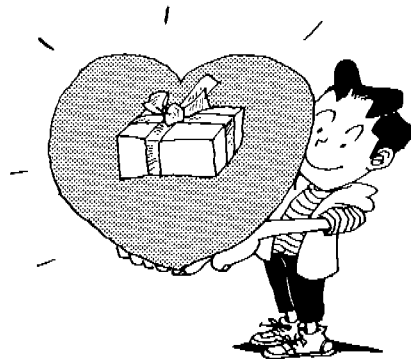
- 관광중 빈민가 등 서민들의 생활모습을 촬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안내원이나 현지인에게 물어 본 다음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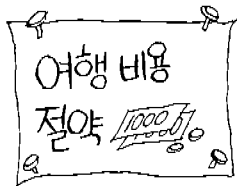


- 쇼핑은 귀국일 직전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경유국보다 귀국직전 머무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

- 출국시 공항면세점이나 입국시 현지 면세점 및 기내쇼핑 이용은 가격면에서 유리하고 품질도 보증받을 수 있어 좋다.

- 기념품은 후일에 여행의 뜻을 되살릴 수 있는 것으로 사며, 선물은 부담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한다.





- 관광지도를 이용하면
행선지를 좀더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갔던 길을
되풀이해 가는 등의
수고를 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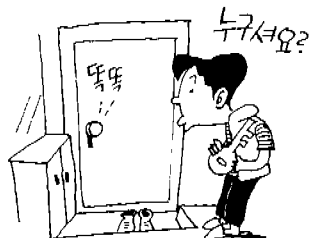
- 목적지가 가까운 곳은
지리를 익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 구매 권유에 유혹되지 말고 계획적인
쇼핑으로 필요한 물건만 사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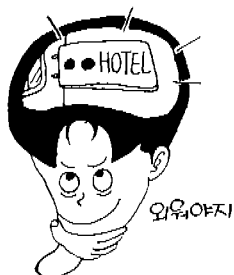
- 숙소 객실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누가
찾아오면 신분을 확인하고
열어 준다.



- 외출을 할 때는
호텔 등록카드 또는
호텔 성냥갑 등을
몸에 지니거나 숙소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며 길을 잃을
경우에 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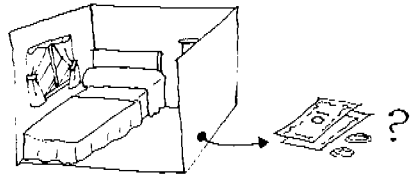
- 남이 보는 앞에서
거액의 현금을
세거나 내보이지 말며
남자는 뒷주머니에
지갑을 꽂거나, 여자는
핸드백을 달랑거리며
다니지 않는다.

- 어디서나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호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의심하고
피하는 것이 좋다.(대개 사기꾼,
날치기 등 불량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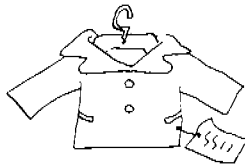
- 호텔 체크 인
호텔에 도착하면 프런트에서
숙박카드에 성명, 국적,
여권번호, 숙박일수 등을
기입하고 객실요금을 미리
확인해 둔다.



- 모닝콜(morning call)
아침기상시간을 교환에게
알려 주면 전화벨을
울려 주는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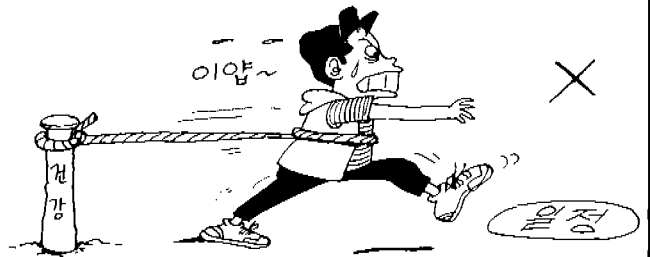
- 세탁서비스
세탁을 원하는 의류에
성명, 객실번호, 일자를
기입해서 세탁서비스
담당에게 부탁한다.
단, 요금이 비싸므로
웬만한 옷은 직접
빨아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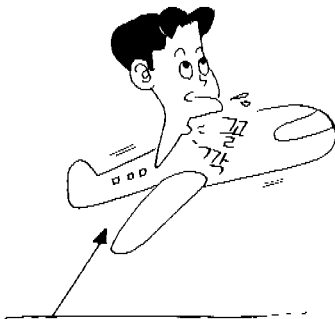
- 객실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음료는 체크 아웃(check out)
시 계산서에 추가하여 청구됨에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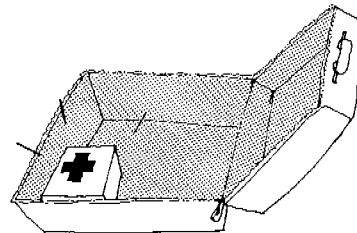
-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여행일정을
무리하게 짜지
않는다.



- 비행기 이·착륙시 귀가 막히고 아프면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한다.



- 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 어렵고, 병원진료도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간단한
상비약을 준비한다.



- 물은 미네랄 워터 등
관매하는 물이나 끓인물을
마시도록 한다.





어휴~
피곤해
근나 마지막
까지 힘내자



☆ 귀국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항공권의 예약을 재확인한다.

① 검역

입국시 콜레라 등 법정전염병
감염지역을 경유한 사람,
동물이나 식물을 반입할 때,
또 여행중 설사, 미열 등
신체이상이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② 입국심사

입국신고카드를 기내에서 배부받아
미리 작성했다가, 여권과 함께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한다.



③ 수화물을 회수하여

세관검사대를 통과한다.

- 면세범위의 물건만 소지했을 때
(녹색검사대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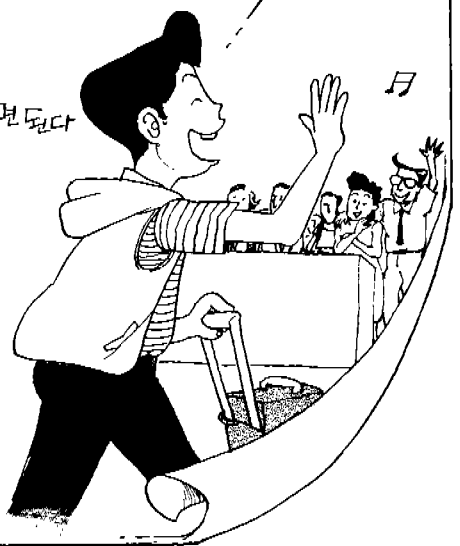


- 과세물품(적색검사대 이용)



엄마·아빠!

밖으로 나오면 된다



청소년과의 만남

지피지기면
외국 친구들의 장점과 단점

지피지기면

개 요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다. 한국 청소년으로서의 ‘나’를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교류활동에 임할 수 있게 한다.

목 적 개인으로서의 ‘나’가 아닌 민족적 특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나’를 비롯한 청소년의 특성과 생활습성의 장단점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간의 교류활동에 있어 보다 정확한 자아의식과 긍지를 갖고 임할 수 있는 태도를 습득한다.

활 동 1 나는 단군의 자손

‘자기’가 인식하는 자신과 타인이 생각하는 자기가 어떻게 다른지 또한 나와 다른 사람과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발견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하고, 단군신화 또는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강의 및 토론을 함으로써 ‘나’의 근원이 무엇이며 ‘나’를 둘러싼 역사와 환경의 영향은 어떤 것이 있었나를 알아본다.

활동방법

강의 및 토론

활동과정

- ▶ 참가자를 몇 개의 모둠으로 나누고 모둠별로 각자 소개한다.
- ▶ 각 모둠원들은 둘씩 짝을 지어 약 20분간 서로 성장환경과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모둠별로 모여 상대에 대하여 설명한다.
- ▶ 각 모둠별로 모둠원들의 발표를 토대로 자신들의 성격이나 생활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해 토론한 후 발표자료를 만든다.

- ▶ 전체가 모여 각 모듬의 대표가 나와 토론된 자료를 발표한다.
- ▶ 또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짧은 글을 작성한다.
- ▶ 단군신화 또는 우리역사에 관한 강의를 듣거나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한다.

활동 2 나는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

우리가 대인관계를 갖는데 있어 항상 일정한 방법과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환경 그리고 신체 및 심리적 여건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 문화 및 생활풍습 그리고 언어 등의 장애로 개인의 만남과 교류보다 어려운 상황아래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활동 또는 여행시 ‘나’와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방식 및 성향에 대한 폭 넓은 이해는 원만한 국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활동방법

게시 및 워크샷 또는 역할연기

활동과정 1

- ▶ 5~7명이 한 모듬을 이루게 한다.
- ▶ 모듬별로 하나의 국가를 선정한 후 모듬원들은 순서를 정해 한 명씩 차례로 선정된 국가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관해 3분이내로 나머지 모듬원에게 설명한다. 설명한 내용은 모두 녹음한다.
- ▶ 각자 사람에 따라 어떤 형태로 설명하였는지 녹음된 내용을 듣고 스스로 평가한다.

활동과정 2

- ▶ 참가자 모두에게 일곱가지 무지개 색깔의 색종이를 나누어 준다.
- ▶ 각자 세계지도를 그린 후, 대륙별 또는 나라별로 선호하는 색종이를 붙인다.

- ▶ 그려진 세계지도에 색종이를 다 붙인 후, 모둠별로 모여 각자 자기가 만든 세계지도 색깔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한다.
- ▶ 색종이의 색깔은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즉, 각 나라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곳의 청소년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여행하거나 상대하게 될 것인가를 추측하여 색깔을 결정한다. 예) 빨간색 - 열정적인 마음, 노란색 - 우울한 마음, 파란색 - 편안한 마음.

활 동 3 거울앞에 서서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나 스스로 인지하는 나에 대해서는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다. 나는 안다는 것은 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분석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건강하고 적절하게 교류하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활동방법

역할연기 또는 게임

활동과정

- ▶ 참가자 각자가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한 단어 또는 하나의 문장을 사용하여 생각하는대로 종이에 적는다.
- ▶ 장점과 단점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적었는가 평가한다.
- ▶ 참가자 중 한 사람을 선정하여 자기역할연기를 시킨다.

□ 예시 : 자기역할연기

자기가 적은 단점과 장점을 연결시켜 한 번은 단점에 대한 비난, 그리고 다음 번에는 장점에 대한 칭찬으로 바꾸어 가며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 ▶ 참가자 모두가 모여 ‘자기이력서’를 작성한다.

□ 자기이력서

개인의 역사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식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공통적인 질문을 작성하여 그 문항을 중심으로 답해나가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기이력서 작성 문항 예

- 1) 자기의 성격을 나타내는 색깔
 - 2) 자기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동물
 - 3) 좋아하는 음악
 - 4) 생활신조
 - 5) 자기와 비슷한 배우나 만화주인공
 - 6) 자기의 별명
 - 7) 10년 후와 20년 후의 자기의 모습과 직업
 - 8) 자기의 일면을 나타내는 글
- ▶ 작성한 자기이력서를 몇 겹으로 접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도록 한 후, 준비된 상자에 넣는다.
 - ▶ 참가자 중 대표자를 한명 선정하여 상자속에 있는 종이를 한 장만 골라 참가자에게 읽어준다.
 - ▶ 각 모듈별로 앉아 발표한 자기이력서의 주인공을 빨리 알아 맞추는 모듈에게 점수를 준다.
 - ▶ 발표가 다 끝난 후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모듈에게 상을 준다.

유의사항

- ▶ 자기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한다.
- ▶ 짝을 지어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이 주도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 우리의 역사에 대한 주제는 한국청소년의 성격과 특성에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고 이와함께 참가자에게 오늘날 한국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토론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표현하는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는 장단점이 아닌 자기 스스로 느낀 장단점을 발견하도록 해야 하고,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대로 간략하게 단어로 서술하게 한다.
- ▶ ‘자기이력서’는 글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 ▶ 게임을 진행할 때는 지나치게 승부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움자료

■ 한국청소년의 의식

① 윤리의식

인륜의 면에서 한국청소년들은 대단히 온건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든가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순결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래를 위해서 당장의 고생을 참고 지내야 한다고 느낀다.

② 성취의식

경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성취지향성이 뚜렷하게 내면화되어 있는 한편, 타고난 재능, 가족배경이나 인간관계, 생활경험이나 운수 같은 것들 대신 본인의 노력을 출세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인생의 목표는 많은 청소년들이 권력이나 돈 또는 명예나 봉사와 같은 관례적 요소 대신 ‘자기만족’이라는 자아실현적 가치를 삶의 목표로 중시한다.

③ 사회의식

청소년 대다수는 능력이 같을 때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든가, 남녀간에도 우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등 대단히 뚜렷한 평등주의적 관념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가사 및 직업활동과 관련된 성역할 인식에 있어 기혼여성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을 반대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은 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등 개

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④ 자아의식

한국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강한 긍정적 자아관을 나타내고, 본인 스스로 일을 알아서 처리하며, 타인의 간섭을 싫어하는 등 강한 자신감이나 자립심을 보이고 있다.

■ 한국청소년의 사회와 문화적 성격

기성세대에 비해서 오늘의 청소년들은 삶의 목표가치에서 출세주의가 현저하게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자기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오늘날 청소년들에게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기성세대에 비해 더욱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다만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물질적인 부를 삶의 목표로 추구하지는 않지만 물질을 바람직한 삶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 매우 중요시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쾌락주의적 삶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인식에 있어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사회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되어 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상당한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부의 편중과 불평등, 부정부패, 퇴폐향락 등 한국사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습방편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는 만화읽기와 텔레비전시청, 비디오보기, 전자오락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나치게 상업주의적 문화환경에 노출되어 비행적 하위문화에 빠져들 가능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리고 행동면에 있어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행동적 성향이 강하고 개방적이며 대중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이기적인 행동양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는 도구적 행동양식을 기성세대로부터 그대로 답습받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1993)

외국 친구들의 장점과 단점

개 요 우리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지엽적이고 상업화된 외국 청소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들이 그들의 실상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사를 우리의 대중매체가 반영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외국 청소년들의 문화 역시 어쩌면 허상에 지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실제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춤추고, 즐겁게 놀고, 자유롭고, 모든 것을 다 가진듯한 우리 세계 밖의 청소년. 그렇지만 그들은 단순히 문화적 혜택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보다 자유롭고 보다 책임감있게 생활하고 있다. 세계를 함께 책임질 외국 청소년들의 진면모를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 스스로 결의를 다져볼 수 있도록 한다.

목 적 외국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놀이문화 등을 통해 미래 지구촌을 함께 꾸려나갈 동료인 그들의 진면모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인으로서의 자세와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활 동 1 내 인생은 나의 것 책임 그리고 자유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 ‘자유!’. 가정, 학교, 사회 국가 등 세상이 가하는 여러 종류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마음껏 누려왔으면 하는 것.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단어가 있다. ‘책임감’ 일례로 외국의 청소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학비와 용돈을 벌고 만 18세가 되면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떠한가? 부모의 발 팔고 소 팔아 대학 나오고 결혼한 후 나약해진 부모를 외면하는 전세대의

가치를 대물림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무와 권리의 관계처럼 책임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다. 외국 청소년들의 인생관과 생활철학을 알아봄으로써 책임을 수반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활동방법

강의 및 토론

활동과정

- ▶ 외국 청소년들의 경제, 이성교제, 놀이문화, 단체활동, 봉사활동, 전통계승, 예술활동, 학교생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분야별 토의자료를 준비한다.

□ 예시 : 힘든 육체노동이지만 용돈도 벌고 재미있어요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포트에 살고 있는 17세의 로리양은 근처의 농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번다. 이 소녀를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농장에 가 보았다. 넓게 펼쳐진 농장에는 여기저기 청소년들이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 왔다. 아이들은 모자를 쓰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김을 매고 있었다. 농장 입구에는 채소를 쌓아 놓은 노점이 있는데 여기서 주민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청소년들이었다. 생글생글 웃어가며 채소를 건네주는 소녀는 로리양과 동갑인 17세라고 했다. 이 농장의 이름은 푸르트너 가족농장인데 주인인 푸르트너씨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트포트의 고등학교 40여 명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주고 있었다.

“우리는 이 농장에서 채소류를 경작합니다. 그리고 길 건너 노점에서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를 직접 주민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이 농장에서는 로리양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밭에서 김을 매거나 가게에서 채소 파는 일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로리양과 같은 이스트 하트포트 고등학교에 다니는 매튜군은 아르바이트로 수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하는 일은

안전관리 요원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수영이나 다이빙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대학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지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휴일에 데이트할 돈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버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죠. 저는 이 일이 마음에 들어요. 하루종일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국 사회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찌부터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이는 어려도 어른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한다.

- ▶ 모둠별로 토의자료를 임의로 선택하여 함께 읽고 토론에 들어간다.

□ 예시 : 우리의 경제력은

내 손으로 용돈을 벌어본 일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경험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과 달리 우리 나라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또는 결혼할 때까지 전적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합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스스로 용돈을 벌어쓰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 자신들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비교해가며 배워야 할 점과 문제점 그리고 장애요인 등에 대해 논의한다.
- ▶ 각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 ▶ 학생대표나 지도자는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 주고, 발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부연설명이 필요하면 각자 발표하도록 한다.

활동 2 영상으로의 만남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작품을 통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본다. 직접 만나고, 교류하고, 느끼고, 배우는 과정을 통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만남을 위한 전 단계인 준비과정의 하나로 시청각 효과를 줄 수 있는 영상자료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생활태도와 가치관, 인생관, 직업관 등 청소년 문화 전반을 접해봄으로써 외국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활동방법

VTR 시청 및 토론

활동과정

- ▶ 세계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을 다룬 VTR 작품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하게 편집한다.
- ▶ 영상작품을 상영하고 청소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곁들인다.
- ▶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
- ▶ 청소년 중 소개된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어 잘 알고 있는 점이 있으면 소개한다.

활동 3 같은 세대 다른 가치관

고도로 개발된 정보화 기술에 의해 세계가 동일권에 접어들어 ‘지구촌’이란 한 마을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수천년을 이어 내려온 민족적, 지역적 문화로 인해 누적된 가치관은 쉽사리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화 시대의 청소년들이라 하여도 국가마다 또는 지역마다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세계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의 차이를 비교하여 견주어 봄으로써 그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다. 도표를 이용한 게임방식으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 결혼관, 인생에 대한 느낌, 자국민에 대한 긍지, 성에 대한 태도, 남녀역할, 행복감, 국가관 등에 관해 알아본다.

활동방법

게임

활동과정

- ▶ 세계 청소년들의 의식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퀴즈문제로 만든다. 청소년들에게 다소 흥미없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색상을 넣어가며 도표를 예쁘고 화려하게 만들어 흥미를 유발한다. ()가 있는 부분은 색종이로 가리고 맞히면 하나씩 떼어낸다.
 - ▶ 5인이 하나의 모둠이 되어 모둠 구성원끼리 모여 앉는다.
 - ▶ 맞추면 10점 틀리면 -5점 씩으로 누적계산하여 높은 점수를 갖는 모둠이 우승한 것으로 한다.
 - ▶ 청소년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도움자료를 힌트로서 읽어 주도록 한다.
 - ▶ 한 번의 게임에 3~4개의 모둠을 참가시키고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준다.
 - ▶ 게임을 마친후 게임을 하면서 흥미로웠던 사실이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었던 점 그리고 호기심이 나는 문제들에 대해 토론해 본다.
- 예시 : 청소년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 어떠한 긍지를 갖고 있는가? 다음은 11개 국가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라의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3가지씩을 선택한 것을 도표로 만든 것이다. 반칸을 채워보도록 하자. 단 도표에 나타난 11가지의 내용이 나라마다 순위는 다르지만 반복해서 나타난다.

「나라별 자기나라의 자랑거리」

순위 항목	1	2	3
한 국	(역사·문화유산)	교육수준	(발전가능성)
일 본	(역사·문화유산)	과학기술	(교육수준)
중 국	(역사·문화유산)	자연·천연자원	(문화·예술)
싱가폴	(생활수준)	(교육수준)	사회안정성
브라질	(자연·천연자원)	자랑할만한것이없다	(역사·문화유산)
미 국	역사·문화유산	(과학·기술)	(생활수준)
영 국	(역사·문화유산)	스포츠	(생활수준)
서 독	생활수준	(과학·기술)	(교육수준)
프랑스	(역사·문화유산)	(과학·기술)	문화·예술
스웨덴	(자연·천연자원)	(생활수준)	사회복지
호 주	(스포츠)	(자연·천연자원)	발전가능성

㉞ ‘역사나 문화유산’은 한국에서 가장 높고 일본·중국에서 높았으며, ‘생활수준’면에서는 싱가포르가 최고 지적률을 보였고 스웨덴·호주·미국·서독 순이었다. ‘사회안정성’은 싱가포르·스웨덴·중국 순으로 나타났고, ‘발전가능성’은 호주·싱가폴·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높게 나타났고, ‘자연·천연자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스웨덴과 국토가 넓은 호주·미국에서 많았다.

유의사항

- ▶ 청소년들이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외국청소년들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 세심하게 지적해 주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 지도자는 모둠별 토론에 참석하여 토론에 활기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3개의 모둠에 1명씩 배치되어 토론의 흐름을 파악하며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퀴즈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의 의도와 진행방법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다.

도움자료

▣ 외국 청소년들의 생활문화자료

① 우리 스스로 데이트 강령을 만든답니다(독일)

요즘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자연스럽게 허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청소년들의 입장이지만 어른들은 아직도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의 생각을 위험하게 보는 경우가 아직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면서 접하는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은 많은 부분에서 특히 이성교제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다. 이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우리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활만이 아니다. 그 생활에 맞는 다른 사고방식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우리와 다른 만큼, 그들 청소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립심이 강하고 자기의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고 학비도 체손으로 마련하는 등 부모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성교제를 자유롭게 하고 누구와 결혼하고 함께 생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자유롭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이나 결혼, 그리고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성숙한 모습은 보여준다. 독일 여학생에게 독일 청소년의 이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이 소녀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말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운동장이나 댄스클럽에서 만나 사귀기 시작합니다. 소개해서 사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말마다 댄스클럽에 가니까 기회는 많은 편이지요. 보통 18~19살에 애인이 생깁니다. 애인이 있으면 평소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놀지만 주말이나 방학때면 애인과 같이 여행을 갑니다. 시간이 없으면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지요. 서로 사랑하면 같이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섹스도 물론 하고요. 흔한 일이지요.”

이렇게 자유롭게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김나지움 학생들은 이성친구를 사귀는 나이가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늦다는 점이다. 이들은 공부하느라 바쁘다 보면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점을 제외하면 독일 청소년들의 이성관계나 성에 대한 관념은 우리 나라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사회적으로 애인을 사귀는 것을 허용하는 시기도 빠르다. 독일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7살이면 대부분 애인이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애인과 단둘이 여행을 하면서 한방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로 생각되고 있었다. 과연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다.

*** 우리의 이성교제는 ?!**

외국 친구들은 이성교제에서 우리보다는 매우 자유스럽고 개방적입니다. 물론 그만큼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의식도 뚜렷하죠. 여러분은 이성친구와 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른 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른들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은 이성교제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② 출입금지 팻말이 없는 곳 — 사무엘 소년클럽과 허트 청소년 클럽 (영국)

- ③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 청소년 문화센터(프랑스)
- ④ 빈민가라고 오페라를 듣지 말란 법은 없지요(미국)
- ⑤ 글로벌 무역 프로그램, 한마디로 청소년이 세계를 경영하는 훈련이죠(미국)
- ⑥ 용돈이 적어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 청소년 카드(프랑스)
- ⑦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나이와 성별이 따로 있나요? - 노쓰커넬리 해양구조대(호주)
- ⑧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독일)
- ⑨ 죽을 때까지 플라멩고와 더불어 살 겁니다(스페인)
- ⑩ 장애자일수록 도전과 모험이 더욱 필요하죠 - 에딘버러 시상제도(영국)

(발로 쓴 세계 청소년의 생활과 미래, 1994)

■ VTR 작품 : 최불암의 세계 청소년 문화기행, MBC 제작, 90.5

■ 퀴즈자료

청소년들은 자신 나라의 국민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다음은 11개 국가의 청소년들이 자신 나라의 국민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3가지씩을 선택한 것을 도표로 만든 것이다.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자. 단 도표에 나타난 10가지의 이미지가 나라마다 순위는 다르지만 반복해서 나타난다.

「나라별 자국민의 이미지」

순위 항목	1	2	3
한 국	(근면)	허영심 많음	(예의바름)
일 본	(근면)	(허영심 많음)	예의바름
중 국	(평화애호)	(근면)	지성적
싱가폴	현실적	(진보적)	(평화애호)
브라질	(근면)	(허영심 많음)	평화애호
미 국	진보적	(허영심 많음)	(지성적)
영 국	(현실적)	(관대함)	오만
서 독	근면	(진보적)	(지성적)
프랑스	(진보적)	믿을 수 없다	(허영심 많음)
스웨덴	평화애호	(허영심 많음)	(현실적)
호 주	(현실적)	관대함	(진보적)

㉞) 각국 청소년의 자국민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제 1위로 ‘근면’을 지적한 나라는 한국·일본·미국·서독 4개국, ‘현실적’은 싱가포르·영국·호주 3개국, ‘진보적’은 미국·프랑스 2개국, 그리고 ‘평화애호’는 중국·스웨덴 2개국으로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일본·미국·스웨덴에서는 ‘허영심이 많다’, 영국에서는 ‘오만하다’, 프랑스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평가가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1991)

어른과의 만남

조용한 아침의 모습
절약하는 민족 친절한 나라

조용한 아침의 모습

개 요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한 몫을 할 수 있는 저력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 것일까?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 민족과 민족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자긍심과 개선의지는 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우리 문화를 접해 보는 활동을 통해 한국인의 고유한 색깔을 찾아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족과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얻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목 표 우리 민족문화와 민족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당당히 해낼 수 있도록 한국인으로서의 독자성과 긍지를 키워 준다.

활동 1 문학에 깃든 우리 얼

우수한 한국문학 작품을 통해 한민족을 위한 집단적 자기발전을 시도해 보자. 문학속의 자기발견은 집단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 현실세계 인간사의 반영인 문학작품 감상을 통해 민족적 특성을 진단해 본다. 한 예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우리’라는 소유대명사를 유난히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과 조화를 요하는 일에는 서툴다고들 지적한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이것은 일본인들의 식민정책에서 나온 왜곡된 것이라고들 한다. 대표적인 문학작품 속에 녹아 있는 우리의 민족적 속성들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려내어 한국인

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민족관을 정립해 보도록 한다.

활동방법

강의 및 토론

활동과정

- ▶ 민족정신이나 정기, 열, 감성, 해학 등을 담은 문학작품들을 선정, 주제와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유인물을 준비한다. 활동시간이 허용되면, 단편소설인 경우 작품 전체를 다루어 본다. 각 작품에 대한 작품해설, 작가소개, 시대적 배경 등을 담은 작품해설서도 준비한다.
 - ☐ 허균의 ‘홍길동전’
 - ☐ 김만중의 ‘사씨남정기’
 - ☐ 박지원의 ‘양반전’
 - ☐ 작자미상 ‘춘향전’
 - ☐ 이인직의 ‘혈의 누’
 - ☐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 한용운의 ‘님의 침묵’
 - ☐ 염상섭의 ‘삼대’
 - ☐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
 - ☐ 이광수의 ‘무정’
 - ☐ 심훈의 ‘상록수’
 - ☐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 ▶ 4~5명씩 한 모둠을 이루게 하여 발췌된 문학작품이 적힌 쪽지를 나누어 준다. 각 모둠마다 다른 문학작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건과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2~3개의 모둠이 같은 작품을 다룰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 ▶ 모둠별로 토론에 들어간다. 모둠의 대표는 토론을 이끌어 가고 모둠원중 한명은 토론된 내용을 기록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느낌을 솔직하고 스스로없이 표현할 수 있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 토론이 3분의 2쯤 진행되었을 무렵 작품해설서를 나누어 준다.

각 모둠원들은 이를 참고하여 자신들이 논의한 내용을 보완한다.

- ▶ 모둠별로 자신들이 논의한 내용을 발표한다.
- ▶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또는 버려야 할 가치들을 열거해 본다.
- ▶ 국문학을 전공한 교사나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

활동 2 지켜야 할 것 버려야 할 잘못

우리 민족과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작품을 통해 민족성과 민족 문화를 재점검하여 우수성은 계발하고 문제점은 자각을 통해 지양해 나가도록 한다. 한민족과 그 문화에 대한 심층있는 소개를 담은 작품들이 영상매체를 통해 많이 제작되어 왔다. 이들 중 적합한 것을 선별하여 우리 것에 대해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도있게 소개한다. 영상세대인 청소년들이 우리 것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활동방법

VTR 시청 및 토론

활동과정

- ▶ 한국의 미와 멋, 철학, 사상, 정취 등을 담은 기존의 영상작품들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특성과 우리 문화에 대한 감각 수준을 고려하여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호기심내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20~30분 용으로 편집한다.

□ 예시 : 종가(설날 연속 기획)

설날을 맞아 안동의 유성룡 대감 종가를 비롯하여 퇴계선생 종가, 의성 김씨 종가, 전북 장수의 안동 권씨 칠봉과 종가, 전남 해남의 윤선도 선생의 종가, 담양군 영일 정씨 종가 등 여섯 종가를 직접 찾아 그들 종문마다 조상 숭배, 가

정예절, 손님접대방법 등을 배우고 또한, 선비사회에서 진정한 선비정신을 실천한 토정 이지함의 유적지를 찾아 당시로서는 잡학에 불과한 실용과학, 지리, 의료 등을 통해 힘없는 민중의 자립을 도운 그의 애민정신을 엿어본다.

— KBS 제작, 93. 1—

- ▶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나 문제점들을 다른 영상작품을 선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편집한다.

□ 예시 : 동방예의지국의 거친 여행자(한국인의 여행보고서)
국제사회에서 거친 매너를 보이는 한국인의 모습을 알아보고 유럽인의 친절, 예의, 남에 대한 배려와 여행을 통해 배우고 쌓아야 할 경험에 대해 알아 본다.

— KBS 제작, 91. 12—

- ▶ 두 작품을 차례로 상영하여 주고 모둠별로 국제사회 안에서 우리가 지양해야 할 점과 지향해야 할 점을 한 가지씩 발표하도록 한다.
- ▶ 모둠별로 자신들이 논의한 내용을 발표한다.
- ▶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으로서 지켜야 할 또는 버려야 할 가치들을 정리해 본다.

활동 3 온고지신

가르치고 배우는 삶을 소중하게 여겨 끊임없이 가꾸고 다듬어 온 것이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주변 민족의 칭송과 우러름을 받아 왔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옛말로 퇴색하여 가고 있는 현실에 “옛것을 연구해 새 것을 찾는 일”은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을 지닌 ‘명심보감’은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가치들을 잘 담고 있다. 명심보감에 담긴 선조들의 사상에 접해 봄으로써 한국인으로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가치들을 점검해 본다.

활동방법

게임

활동과정

- ▶ 명심보감 안에서 청소년기를 위해 양분이 될만한 구절들을 골라 각 귀절마다 두 내용이 적힌 쪽지를 준비한다.

□ 예시 :

1. 원문

마원	말 종신행선	선유부족	일일행악	악자유여
馬援	이 日 終身行善	이라도 善猶不足	이요 一日行惡	이라도 惡自有餘
* 馬(말 마), 援(구원할 원), 身(몸 신), 行(갈 행, 행할 행), 猶(오히려 유), 足(발 족, 족할 족), 餘(남을 여)				

2. 글풀이/한자뜻

“평생 선한 일을 해도 선은 오히려 부족하고, 단 하루 동안 악한 일을 해도 악은 저절로 남아 있다.”

- ▶ 4~5명 정도로 한 모둠을 이루게 한다.
- ▶ 각 모둠마다 5종류의 명심보감 귀절의 원문 5장, 글풀이/한자 뜻 5장을 나누어 준다.
- ▶ 모둠별로 자신들이 받은 5종류의 명심보감 원문에 글풀이 짝을 맞춘다.
- ▶ 먼저 맞추는 모둠이 우승한 것으로 한다.
- ▶ 모둠별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하나씩 선택하여 해설을 붙들인 모둠원들의 느낌을 발표한다.

유의사항

- ▶ 문학작품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주제의 문학작품을 다루도록 한다.
- ▶ 청소년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문학작품이나 영상작품 그리고 명심보감의 문장을 선정한다.
- ▶ 명심보감 대신 우리나라의 고사성어나 속담 등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다.

- ▶ 가능하면 토론이나 발표를 통한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한다.
- ▶ 여건이 되면 국문학, 국사, 민속학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도움자료

■ 한국문학 참고서적

- ① 종합적 사고를 키워 주는 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 1, 2., 김태영 외 2인 엮음.
- ② 고교생이 읽어야 할 소설 1, 2, 3, 4., 구인환 엮음.
- ③ 우리 소설 50선, 문승준·이재인 엮음.
- ④ 고전문학 이야기주머니, 진경환·우용순 외 지음.
- ⑤ 명저의 고향 — 단테의 ‘신곡’에서 정지용의 ‘향수’까지, 윤정국·고미석·김광원 저.
- ⑥ 소설로 보는 한국사회 —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소설 1, 2., 국어교사모임 엮음.

■ VTR 작품 목록

① 토정 이지함(한국의 미)

당쟁과 공리공론으로 상징되는 조선사회에서 진정한 선비정신을 실천한 토정 이지함. 토정의 유적지를 찾아 당시로서는 잡학에 불과한 실용과학, 지리, 의료 등을 통해 힘없는 민중의 자립을 도운 그의 애민정신을 엿어본다. — KBS 제작, 93. 1 —

② 영산민속놀이(한국의 미)

마을의 단합과 풍요를 위해 시작된 경남 창녕군 영산면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행사인 영산쇠머리대기와 줄다리기를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삶의 아름다운 형태를 찾아 본다.

— KBS 제작, 93.5 —

③ 구림 대동계(한국의 미)

마을 주민의 화목과 신의, 예의, 도덕을 위해 결성된 전통적 계모임을 통해 우리 전래의 상부상조 미덕을 살펴본다. 대동계의 창설과 역사, 대동계의 성격, 구림대동계의 현존상태, 기타 마을 현황과 대동계를 알아 본다. — KBS 제작, 93.4 —

④ 3월의 상(3.1절 특집)

3.1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교과서와는 다른 3.1운동의 실상을 조명한다. 역사 교과서를 검증하면서 3.1운동은 왜 일어났으며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때문인가, 또는 하나의 기폭제로만 역할하였는가, 과연 3.1운동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알아 본다. — KBS 제작, 92.6 —

⑤ 추사 김정희 — 세한도(한국의 재발견)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시기에 추사 당시까지의 서예사를 한 글씨체안에 응축시켜 놓은 추사체를 완성하고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선비의 절조를 표상한 세한도를 그려냈다. 만년에 추사의 글씨와 그림에는 그의 야심과 패기가 세월을 겪으며 굴절된 과정과 이를 거쳐 새롭게 승화된 예술의 경지가 담겨져 있다. 그는 이 세상을 공경하되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강직한 선비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 나갔다. —KBS 제작, 94.3 —

⑥ 서울 6백년 — 숨어있는 보물들(역사탐험)

전통보다는 현대적 이미지가 월등히 우세한 서울에서 전통문화를 어떻게 회복해 가야 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강북 4대문안 지역의 역사 보존지구와 성곽지구, 신석기 시대 주거지역 등으로 연결되는 역사현장을 중심으로 장엄하고 수려한 서울의 산수환경과 함께 숨겨진 역사적 보고를 찾아낸다. — KBS 제작, 90.7 —

⑦ 아직은 조롱받는 부자손님들(한국인의 여행보고서)

한국인의 과소비 실태를 현지 상인 및 언론인을 통해 알아 보

고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태도를 소개하며, 낚시, 골프 투어 등 사치성 레저 실태와 쇼핑센터를 찾는 한국의 부자손님들을 통해 외국여행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를 알아 본다.

— KBS 제작, 91.12 —

⑧ 시행착오를 넘어서(한국인의 여행보고서)

해외여행 자유화 30년이 가까운 일본의 관광을 통해 그들의 시행착오와 여행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를 알아 본다. — KBS 제작, 91.12 —

⑨ 우리, 우리 것은 어디에

해방후 4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느 새 무비판적 외국선호 의식에 젖어 우리 말과 우리 글의 오염현상은 물론 우리의 정신까지 병들게 하고 긍지와 자존심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국제화 시대에 우리는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 KBS 제작, 86.8 —

■ 명심보감

① 천명(天命)

맹자왈 순천자 존 역천자 망 孟子曰 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하니라
孟(만 맹), 順(따를 순), 逆(거스릴 역), 天(하늘 천), 亡(망할 망)
맹자가 말하였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은 살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

② 나라를 다스림(治政)

동몽훈 왕 당관지법 유유삼사 왕청왈신왈근 지차삼자 童蒙訓에 曰 當官之法에 唯有三事하니 曰 清曰慎曰勤이라 知此三者

척지소이지신의 면 則知所以持身矣니라
童(아이 동), 蒙(어릴 몽), 唯(오직 유), 淸(맑을 청), 愼(삼갈 신), 勤(부지런할 근), 持(가질 지)
‘동몽훈’에서 말하였다. “벼슬을 하는 방법에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말하자면 청렴함과 신중함과 근면함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처신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③ 분수에 편안함(安分)

지족상족 종신불욕 지지상지 종신무치 知足常足이면 終身不辱하고 知止常止면 終身無恥니라
常(항상 상), 終(마칠 종), 辱(욕될 욕), 止(그칠 지), 恥(부끄러움 치)
“만족할 줄 알아서 항상 만족하면 평생 욕을 보지 않고, 그칠 바를 알아서 항상 그치면 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④ 성품을 경계함(戒性)

인일시지분 면백일지우 忍一時之忿이면 免百日之憂니라
時(때 시), 忿(성낼 분), 免(면할 면), 憂(근심 우)
“한 때의 분을 참으면, 백 일 동안의 근심을 면한다.”

⑤ 몸을 바르게 함(正己)

재여주침 자왈 후목 불가조야 분토지장 불가오야 宰予晝寢이어늘 子曰 朽木은 不可雕也요 墁土之墻은 不可汚也니라
宰(말을 재), 予(나 여), 晝(낮 주), 寢(잠잘 침), 朽(썩을 후), 雕(새길 조), 墁(무덤 분), 墻(담 장), 汚(흠손 오)
재여가 낮잠을 자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흠손질을 할 수 없다.”

⑥ 효행(孝行)

태공	왈	효어친	자역효지	신기불효	자하효언
太公이 曰 孝於親이면 子亦孝之하나니 身既不孝면 子何孝焉이리오					
於(어조사 어), 亦(또 역), 身(몸 신), 既(이미 기), 何(어찌 하), 焉(어조사 언)					
강태공이 말하였다. “아버지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효도하나니, 자신이 이미 불효하다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겠는가?”					

⑦ 의에 편안함(安義)

순자	왈	자지자	불원인	지명자	불원천	선의이후
荀子가 曰 自知者는 不怨人하고 知命者는 不怨天이니라 先義而後						
리자 榮 선리이후의자 辱						
利者는 榮하고 先利而後義者는 辱이니라						
怨(원망할 원), 榮(영화 영), 辱(욕될 욕)						
순자가 말하였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고, 운명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의리를 앞세우고 이득을 뒤로 하는 사람은 영화를 고, 이득을 앞세우고 의리를 뒤로 하는 사람은 치욕을 당한다.”						

⑧ 본심을 보전함(存心)

백교백성	불여일줄
百巧百成이 不如一拙이니라	
巧(공교할 교), 成(이룰 성), 如(같을 여), 拙(줄할 줄)	
“백 가지 기교로 백 번 이루는 것이 한 번 서투르게 하는 것만 못하다.”	

⑨ 부지런히 배움(勉學)

예기 왕 옥불탁 불성기 인불학 부지도 禮記에 曰 玉不琢이면 不成器요 人不學이면 不知道니라
禮(예의 예), 記(기록할 기), 琢(조을 탁), 器(그릇 기)
『예기』에서 말하였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다.”

⑩ 자식을 훈계함(訓子)

장자 왕 사수소 부작 불성 자수현 불교 불명 莊子が 曰 事雖 나 不作이면 不成이요 子雖賢이나 不敎면 不明이니라
雖(비록 수), 作(지을 작), 成(이룰 성), 賢(어질 현), 明(밝을 명)
장자가 말하였다. “일이 비록 작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자식이 비록 어질더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총명하게 되지 못한다.”

⑪ 마음을 살핌(省心)

성가지아 석분여금 패가지아 용금여분 成家之兒는 惜糞如金하고 敗家之兒는 用金如糞이니라
成(이룰 성), 兒(아이 아), 惜(아낄 석), 糞(똥 분), 如(같을 여), 敗(무너뜨릴 패), 用(쓸 용)
“집안을 일으킬 아이는 똥을 금처럼 아끼고, 집안을 망칠 아이는 돈쓰기를 똥처럼 한다.”

⑫ 마음을 살핌(省心)

역 왕 덕미이위존 지소이모대 선불금화의 易에 曰 德微而位尊하고 知小而謀大면 鮮不及禍矣니라
易(바꿀 역, 쉬울 이), 微(작을 미), 位(자리 위), 尊(높을 존), 謀(피할 모), 鮮(드물 선), 矣(어조사 의)

“덕이 미미하면서 지위가 높거나 지혜가 적으면서 꺾이는 것이 크면, 화를 당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⑬ 마음을 살핌(省心)

불한자가포승단 지한타가고정심
不恨自家蒲繩短이요 只限他家苦井深이로다

限(한탄할 한), 蒲(부들 포), 繩(노끈 승), 短(짧을 단), 只(단지 지), 苦(쓸 고), 井(우물 정)

“자기 집 두레박 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단지 남의 집 샘이 깊음을 탓한다.”

⑭ 마음을 살핌(省心)

불경일사 부장일지
不經一事면 不長一智니라

經(지낼 경), 長(기를 장)

“한 가지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못한다.”

⑮ 예를 따름(尊禮)

약요인중아 무과아중인
若要人重我인댄 無過我重人이니라

若(만약 약), 要(구할 요), 重(무거울 중), 過(지날 과)

“만약 남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면, 내가 남을 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

(명심보감, 1995)

절약하는 민족 친절할 나라

개 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국내외 뉴스를 통해 세계 구석구석의 사건과 접하면서 지구촌 가족임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타국가 가 어떤 결정이나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생을 위한 이웃으로 그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 만큼 타인을 아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에 대한 단순한 정보보다는 그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따뜻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와 민족성 그리고 대표적인 위인들을 통해 미래세계의 주역으로서 이웃으로서의 국가적 연대감을 형성해 보도록 한다.

목 적 세계 각국의 종교와 민족성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활동을 통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을 형성하도록 한다.

활 동 1 국경있는 신의 나라

청소년들은 미래세계의 주역으로서 세계를 포용하고 있어야 한다. 미래를 살아가야 할 그들의 세계인식 안에 낯선 구석들을 없애 주어야 한다. 그들은 유럽의 백인들과 아프리카의 흑인들 그리고 남태평양과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의미가 응결된 문화적 실체인 종교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감하고 인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 미래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의 세계인식은 당연히 그들과 더불어 오늘의 삶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고뇌하고 함께 꿈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는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구촌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고 있어야 한다. 세계가 하나되어 인식의 지평안에 수용되는 현대에서 청소년들은 그들이 만나게 되는 온갖 ‘다름’들을 소박하게 승인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기행을 통해 지구촌 가족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폭을 넓혀 본다.

활동방법

게시 및 토론

활동과정

- ▶ 세계지도와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준비한다. 세계지도는 국경, 국가, 주요도시들만이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는 흰색의 지도로 준비한다.
- ▶ 모둠별로 세계지도에서 한 지역씩 맡는다. 6대주 또는 그보다 더 작게 세계를 나눈다.
- ▶ 모둠별로 모둠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표적인 종교를 지도 위에 표시해 본다.
- ▶ 완성된 지도를 서로 비교해 보며 가장 잘 만들어진 지도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도에 모둠별로 자신의 모둠에서 의견수렴한 지역의 종교를 그려 넣어 세계 종교지도를 완성해 본다.
- ▶ 완성된 지도를 중심으로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에 대해 그리고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 민족국가의 종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 ▶ 또한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나 종교에 관련된 체험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게 한다.
- ▶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세계의 지배적인 종교와 그것의 국가별 분포상태 그리고 특성들을 정리해 준다.

활동 2 VTR로 떠나는 세계 문화기행

투우의 나라 스페인, 삼바와 축구의 나라 브라질, 다시 하나로 태어난 독일, 풍차와 꽃의 나라 네덜란드, 거둬 태어나는 나라 헝가리,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 위대한 자연과 잠자는 저력 캐나다, 인도의 진주 스리랑카, 신이 만든 나라 멕시코,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 영원한 이슬람 왕국 사우디 아라비아, 흑해의 돌풍 불가리아 등 지구상에는 각기 다른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수백개의 나라가 있다. VTR 작품을 통해 세계 여러 국가의 문화와 국민성 그리고 역사와 지리에 대해 알아 본다.

활동방법

VTR 시청 및 토론

활동과정

- ▶ VTR 작품으로 소개하려는 나라의 지도상의 위치와 수도, 주요 산업, 민족, 종교, 국기 등에 대해 소개한다.
- ▶ VTR 작품을 20~30분 정도로 활동에 맞게 편집하여 상영한다.
 - 예시 : 다시 하나로 태어난 독일
 - 분단국가로 있다가 최근에 통일을 이룩한 나라, 강과 숲과 호수와 초원으로 다채로운 나라 독일,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의 2.5배인 35만 6천 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 7,800만명에 GNP 18,000달러인 유럽 제일의 공업국 독일의 통일과정과 발전상 그리고 12만ha가 넘는 유럽 국립공원을 찾아 광활하고 다양한 알프스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 유명한 맥주축제와 독일인의 음식이라 할 수 있는 소시지 제조과정, 그리고 벤츠 자동차에 대해서도 알아 본다.
 - KBS 제작, 90.11 —
- ▶ 감상후 느낌을 나눈다. 인상깊었던 점과 배울 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 소개된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대표적인 작가와 위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 ▶ 청소년 중 소개된 나라를 여행한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어 잘 알고 있는 점이 있으면 소개하도록 한다.

활동 3 세계 위인과 한 자리에

인류발전에 공헌한 위인들과 그들의 업적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종교 분야 등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며 세계를 빛낸 인물들로 게임을 만들어 본다. 책으로 접했던 위인들을 즐거운 게임방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본다.

활동방법

게임

활동과정

- ▶ 세계의 위인과 그들의 업적을 소재로 게임자료를 만든다.

□ 예시 :

1. 뉴턴
① 현대 과학을 5세기나 앞서 궤도에 올려놓은 인류사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천문학자 ② 그가 주장한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라는 역학적 자연관은 18세기 계몽사상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③ 영국인 ④ 만유인력
2. 링컨
① 별칭이 ‘정직한 에이브’ ‘장작 패는 사람’ ‘위대한 해방자’ ② 1809년 미국의 캔터키에서 태어남 ③ 미국의 16대 대통령 ④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 폐지

3. 소크라테스

① 철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렸다고 평가받는 BC 5세기 철학자
② 신이 부여한 임무는 육체나 재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혼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 즉 가능한 한 개인의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파함
③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도시가 숭배하는 신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종교를 끌어 들였다”는 거짓 이유로 독배를 마심
④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라는 충고로 유명한 아테네 철학자

4. 토스토옙스키

① 사형직전에 사면되어 시베리아 옴스크 유형지에서 중노동 4년, 군대에서 병졸로 4년 근무한 러시아의 소설가
② 인간 심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심리적 통찰력으로 특히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20세기 소설 문학 전반에 심오한 영향을 줌
③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19세기 소설가로 니체·앙드레 말로·쾰트르 등에게 영향을 미침
④ ‘백치’, ‘악령’,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사람들’의 저자

5. 베토벤

① 그의 음악세계는 하이든·모짜르트의 고전주의 전통에 입각했고, 문학계의 동시대 작가 괴테와 실러의 작품에 표현된 새로운 시대정신을 포괄했으며,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던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좇았다.
② 모짜르트는 그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이 젊은이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감탄했다.
③ 1804년에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 3번 교향곡 일명 ‘영웅’을 완성했으나 그가 황제에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 표지를 ‘위대한 사람을 기리며’로 고침
④ ‘월광’, ‘황제’, ‘전원’, ‘합창’ 등 수 많은 곡을 남김

- ▶ 5인이 한 모듬이 되어 한 번에 5개의 모듬이 참가한다.
- ▶ 힌트 ①번 만으로 알아 맞추면 20점, ②번에서 맞추면 15점, ③번까지 힌트를 주면 10점, ④번까지 주면 5점, 못 맞추면 0

점으로 계산한다.

- ▶ 한 게임마다 5개 정도의 문제를 풀고,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준다.
- ▶ 점수에 따라 서열을 정한다.
- ▶ 게임에 등장했던 인물중 한 인물을 선택해 그의 업적과 생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토론한다. 지도자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둔다.

유의사항

- ▶ 모둠을 짤 때 활동의 성격과 참가 청소년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수를 정한다.
- ▶ 토론하고 발표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자가 적절히 개입해 준다.
- ▶ 지도자는 활동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
- ▶ 가능하면 관련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활동의 의미를 청소년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도움자료

■ 세계의 종교

신성하거나 거룩하거나 영적이며 신적인 것과 인간의 관계를 종교라 한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인간과 신 또는 신·영들과의 관계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여겨진다. 예배는 아마도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위, 올바른 믿음, 종교단체에의 참여 등도 신도와 예배자들에 의해 실천되고 종교적 현인들과 경전에 의해 명해진 종교생활의 구성요소들이다. 세계의 주요 종교는 대체로 다음에 열거된 바와 같다.

- ① 로마 가톨릭
- ② 개신교

- ③ 동방교회
- ④ 이슬람교
- ⑤ 불교(테라바다, 티베트)
- ⑥ 힌두교
- ⑦ 유대교
- ⑧ 전통윤리(종족) 종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9권 ‘종교’에 관련된 항목과 pp598~599의 ‘세계의 종교 분포도 참조’ 각각의 종교적 특성에 대해서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참조. ⑧ 전통윤리 종교는 정진홍의 ‘신을 찾아 인간을 찾아’ 참조.

■ VTR 작품 목록

① 남미의 대평원 아르헨티나

목축과 탱고, 축구의 나라, 그리고 빈부의 차와 균형적인 발전이 안되면서 세계 3대 외채국으로 전락한 아르헨티나,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문화수준이 높고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는 국민성을 지닌 나라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대평원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무기화 할 수 있으므로 발전의 소지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대사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 부침 과정을 시대적 상황과 사안별로 분류해 본다 - KBS 제작, 90.5 -

② 동서양의 교차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한 섬나라. 연중 기온차가 없는 열대성 기후에다 면적은 서울과 비슷하고 인구는 약 270만명, 1819년 영국인 대폴즈경에 의해 국제자유무역항으로 개항, 오늘날 세계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한 싱가포르의 역사적 배경과 물과 거리와 공직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싱가포르의 이모저모를 돌아본다. - KBS 제작, 91.4 -

③ 투우의 나라 스페인

스페인의 문화, 생활모습, 기후, 낙천적이며 정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투우, 산제르멘 축제, 고야의 춤 등 특유의 풍속을

소개한다. - KBS 제작, 90.4 -

④ 삼바와 축구의 나라 브라질

브라질의 역사, 아마존강 유역의 자원,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 인종구성 등을 알아보고 풍부한 자원이 뒷받침되어 21세기에 는 경제부국으로 성장할 브라질인의 야심과 원대한 꿈을 살펴 본다. 또 브라질의 주된 특산물인 사탕수수과 그리고 전세계의 40%를 차지한 양질의 커피 재배의 생산과정을 소개하고 남국 특유의 삼바춤과 축구 이야기도 들려준다.

- KBS 제작, 90.8 -

⑤ 풍차와 꽃의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전반적인 개요를 비롯한 역사, 물과의 투쟁, 이 나라가 낳은 대표적인 작가 고흐의 미술세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즈산업, 길이가 1,600m나 되는 기차, 도미노 게임, 주한 네덜란드 부대사와의 대담 등을 구성으로 보여준다. 국가의 4분의 1이 바다보다 낮은 지역적 특성으로 농경지 확보와 꽃재배를 발달시킨 네덜란드의 나쁜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풍요한 나라를 건설한 근면 성실한 그들의 민족성을 알아 본다. - KBS 제작, 90.7 -

⑥ 거둬 태어나는 나라 헝가리

1989년 2월 동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은 헝가리는 면적이 9만 3천 제곱킬로미터에 97%가 마자르인으로 구성된 인구 1,060만명의 유럽 3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나라이다. 일찍부터 동서문물의 통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이 나라는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외침의 역사가 끊임없었다. 이 나라 수도 부다페스트의 이모저모와 말고기, 스포츠, 음식문화, 민속무용 등을 소개한다. - KBS 제작, 91.1 -

⑦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

북유럽의 핀란드는 어떤 나라인지 역사와 지리적 배경을 통해 알아보고 벌목과 식수가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 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주된 산업 임업의 모든 것을 살펴본

다.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고향애기와 이 나라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생가를 찾아 그의 작품세계와 음악가로서 조국 핀란드를 위해 헌신한 과정을 소개, 특히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준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다. - KBS 제작, 90.12 -

⑧ 위대한 자연, 잠자는 저력 캐나다

이주민들에 의해 세워져 나라를 건설해 가는 나라 캐나다. 우리나라 국토의 45배 크기이며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캐나다의 역사, 인종, 문화, 자원, 국민성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을 알아보고 자연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캐나다인의 삶과 국립박물관, 도서관, 웅장한 산림들을 소개한다. - KBS 제작, 90.12 -

■ 세계를 빛낸 사람들

1. 갈릴레이

① 16~17세기 이탈리아의 수학자·천문학자·물리학자 ② 중력과 운동에 관한 연구에 실험과 수리해석을 함께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근대역학과 실험물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짐 ③ 피사 대성당에서 등잔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유명한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함 ④ ‘2개의 주된 우주체계 -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 -에 관한 대화’ 저술로 문제가 되어 종교재판을 받고 그가 지지했던 지동설을 포기함

2. 공자

① BC 6세기 춘추시대의 교육자·정치사상가·철학자 ②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 ③ 자신을 옛것을 살려 새것을 알게 하는 ‘온고지신’의 전수자로 여김 ④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세가 되어서 학문의 기초를 확립했고, 40세가 되어서 판단에 혼돈을 일으키지 않았고, 50세가 되어서는 천명을 알았고, 60세가 되어서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았고,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 그의 말이 논어에 기록되어 있음

3. 슈바이처

① 1952년 ‘인류의 형제애’를 위한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 ② 프랑스의 실존주의 문학가 샤르트르와 사촌지간 ③ 독일 태생의 의사, 신학자, 철학자, 오르간 연주자 ④ 아프리카에 원주민을 위한 병원을 세워 선교의사로 활약하고 그 곳에서 사망

4. 니체

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이 사람이 없이는 20세기의 철학·신학·심리학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함 ② 그는 자신의 저작들을 허무주의와의 투쟁으로 보았다. 영원회귀의 원리, 초인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킴 ③ “신은 죽었다”는 그의 주장은 20세기 유럽 지식인의 주요한 구호가 됨 ④ 성서 이야기 형식의 문학적·철학적 대작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저술함

5. 마담퀴리

① 1903년과 1911년 두 차례에 걸쳐 노벨상을 수상함 ②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물리학자 ③ 소르본 대학교의 첫번째 여교수 ④ 라듐을 발견한 여성 물리학자

6. 루소

① 프랑스의 철학자·교육학자·음악가·음악평론가 ② 18세기 이성 시대를 끝맺고 낭만주의를 탄생시킨 사상을 전개 ③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사회와 문명때문에 타락했다”고 주장한 논문 ‘학예론’의 저자 ④ ‘사회계약론’, ‘인간불평등기원론’, ‘에밀’, ‘신엘로이즈’ 저술

7. 모짜르트

① 하이든과 더불어 18세기 빈 고전주의악파의 대표적 인물 ② 요아네스 크리소스토무스 볼프강구스 테오필루스라는 이름으로 영세를 받음 ③ ‘진혼곡’을 작곡하는 도중 요독증으로 요절함 ④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돈 지오바니’, ‘마적’의 작곡가

8. 노벨

① 스웨덴의 화학자·공학자·실업가 ② 인도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자선사업에 돈을 아끼지 않음 ③ 자신이 발명한 무기로 크고 작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평화주의자 ④ 다이내마이트와 뇌관을 발명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상이 된 노벨상 제정

9. 간디

① 인류애에 의한 폭력의 부정만이 최후·최강의 승리임을 확신하고 주장함 ② 순결과 무소독을 권장함 ③ 1888년 영국 런던대학에서 법률공부 후 변호사가 됨 ④ 마하트마 즉 위대한 혼이라 불린 인도의 성인

10. 리빙스턴

① 스코틀랜드의 선교사·탐험가로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인들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침 ② ‘잠베지강과 그 지류 탐험에 대한 이야기’, ‘남아프리카에서의 선교여행과 조사’ 저술 ③ 그리스도교·상업·문명이 아프리카를 개발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30여년간 남부·중앙·북부 아프리카에서 탐험과 선교활동을 함 ④ 1873년 5월 잠비아에서 병마로 사망

사회와의 만남

무엇을 보여줄까
모르는 지식 아는 무지

무엇을 보여줄까

개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앞서 우리의 것에 대한 긍지가 없다면 우리는 세계속에서 당당할 수가 없다. 즉, 외국의 것을 습득하는 것이 국제화로 나아가는 길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신감이 국제화의 지름길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문화가 세계속에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목적 우리의 것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가지 활동방법을 통해 익히게 한다. 그리하여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세계속의 한국에 대해 긍지를 갖게 한다.

활동 1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박물관이에요

우리나라와 같이 길고 장구한 역사와 동질적인 민족성을 지닌 나라는 세계에서 드물다.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많은 문화유산을 가장 손쉽게 보는 방법은 박물관에서 감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놓여있을 때만이 그 빛을 가장 잘 발휘하게 된다. 유리창에 고이 진열되어 있는 유산을 구경하면서 그에 따른 간단한 설명을 읽기 보다는 방방곡곡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그 지역의 특성과 함께 감상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진가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세계화를 맞아 남의 것을 익히고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것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

활동방법

시청각 강의, 토론 및 게시

활동과정

- ▶ 우리 문화유산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우수성에 대한 시청각 강의를 듣거나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한다.
- ▶ 3~4명으로 모임을 나눈 후 두꺼운 종이에 우리나라 지도(남북한 모두)를 커다랗게 그린다. 그리고 나서 도 또는 지역으로 지도를 오려 모둠에게 나누어 준다.
- ▶ 자신의 모둠에 할당된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도로 표시한다(그림과 위치 등).
- ▶ 모두 모여 완성된 지도를 모아 하나의 문화유산 지도를 완성시킨다.

활 동 2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예찬

세계 각 민족이 이루어낸 전통문화중 서로 비교되면서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전통의복이다. 각 민족의 전통의복은 오랜 역사의 흐름속에서 고유한 문화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민족의 자연과 문화의 흐름이 모두 다채로운 색깔과 다양한 옷 모양에 속속들이 어우러져 있게 된다. 민족의 전통의복이 사라지고 양복이 문화인임을 상징하는 의복이 되어버린 지금, 다시금 우리의 전통의복의 멋을 느껴보도록 한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세계속에서 일류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활동방법

토론 및 역할연기

활동과정

- ▶ 조선시대의 계층에 따라 모듬을 나눈다(왕족, 양반—문반·무반—, 평민, 상민 등).
- ▶ 각 모듬은 나뉘어진 조선시대 계층의 역할과 특성에 대하여 아는대로 나열 한다.

- ▶ 전체가 모여 각 계층을 반영하는 의복을 입을 모델과 이를 설명할 해설자를 선정한다.
- ▶ 또한 전통의복인 한복의 패션쇼에 쓰여질 음악과 영상자료를 맡을 사람을 선정한다. 패션쇼에 쓰여질 영상과 음악은 반드시 국악이 아니어도 된다. 오히려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여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해보아도 좋다.
- ▶ 모두 준비되면 전통의복 패션쇼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한다.
- ▶ 패션쇼가 끝난뒤 우리의 전통의복인 한복에 대하여 토론한다.

활 동 3 김치, 입맛 돋구는 세계적 음식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를 제외한다면 의식주에 대한 욕구만이 남는다. 인류의 문화라는 것도 바로 자연과 어우러진 의식주에 대한 유산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욕구를 전통문화의 가치에 대한 지나친 열등감으로 인해 서양의 것으로 바꾸어 왔다. 한복은 양복으로 바뀌어 왔으며, 온돌방은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나 대청마루가 시원한 우리의 집은 서양의 것을 닮아갔다. 이와같이 의와 주가 변화되어 가는 것에 비해서 먹거리 문화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은 아직도 우리의 식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서히 우리의 먹거리 문화마저도 위기일발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다. 간편한 식사라는 명목과 외국 브랜드의 확장으로 인해 햄버거, 피자, 콜라 등이 우리의 음식과 나란히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것은 고사하고, 가장 전통적인 음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김치가 일본에 의해 ‘기무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외국에 수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일 것이다.

활동방법

견학 및 시청각 강의, 실습

활동과정

- ▶ 우리의 음식중 주제를 선정한다(김치로 선정한다).
- ▶ 선정된 주제에 맞게 박물관을 견학하든가, 시청각 강의를 듣는다(김치박물관, 민속박물관).
- ▶ 견학과 강의후 만들어 볼 김치의 종류를 선정한 후 모둠을 4~5명으로 구성한다.
- ▶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만든다. 이때 모둠원 모두가 골고루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 ▶ 완성된 김치와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다.
- ▶ 가장 잘 만든 모둠에게 상을 준다.

유의사항

- ▶ 지도자는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의복, 음식 등에 대한 사전의 다양한 지식과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진행이 단순화되고 형식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다.
- ▶ 미리 전통의복인 한복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의복을 준비하도록 한다. 만약 조선시대 계층의 의복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남녀노소, 외출복, 평상복 등으로 구분하여 입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평민 아낙의 옷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무명천으로 앞치마를 두르거나 머릿수건을 한다.
- ▶ 전통의상에 대한 역할과 특성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패션쇼’라는 것을 한복으로 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것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

도움자료

■ 팔도의 문화유산

①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I, II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숨은 문화유산을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부록으로 각 지리를 그려놓고 있다.

② 한국고대사문제연구소, 길따라 유적따라－한국역사기행

*KBS 비디오 영상물(KBS 영상사업단)

③ 한국재발견－수원성

수원성은 조선 후기 문예부흥기로 대표되는 정조때 세워진 성곽이다. 당시에는 전쟁기간이 아닌 평화시였다. 과연 수원성은 어떤 연유로 세워졌으며, 수원성 안에는 어떤 새로움이 담겨있는지 그 의문점 등을 자세히 풀어본다. 수원성이 세워진 정조년간은 중국을 통해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그 새로운 과학기술을 실학이란 우리의 시각으로 걸러 실험해 본 것이 수원성이다.

－ KBS 제작, 94. 7－

④ 한국재발견－바위그림의 비밀

우리나라 바위 그림은 다양하고 예술성이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발견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전문연구의 부족으로 세계미술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 대곡리 바위그림, 울산 천전리 바위그림, 경주 금장대 바위그림을 통해 바위그림이 단순한 그림인가 아니면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인가 하는 문제를 선사문화의 현장에서 풀어본다.

－ KBS 제작, 94. 4－

⑤ 한국재발견－금동향로

공주 무녕왕릉 발굴 이후 최대 백제유적발굴로 손꼽히는 부여 능산리 출토 금동향로(금동 용봉 봉래산향로)가 한시적 일반 공개됨에 따라 현재까지 진척된 다각적인 분석방법을 1차적으로 종합하여 백제의 회화, 공예, 음악, 사상사 등에 있어 독창성과 우수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봉황, 인물, 동물상 등의 예술적 표현과 주조기법, 종교적 수용, 당시의 사상적 흐름과

금동향로의 보존처리과정(보호피막처리)등을 소개한다.

— KBS 제작, 94. 4 —

⑥ 한국재발견—겨울향로봉

남한에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춥고 눈이 많으며 민간인 통제구역인 향로봉에서 국토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고 평균기온 영하 17℃로 내려가는 향로봉의 매서운 추위에서 분단의 현장에 선 초병들의 병영생활을 통해 이 시대의 국가와 통일에 대한 의미를 재인식해 본다. 아울러 천연보호구역인(제 247호) 이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겨울설경, 그곳에서 삶을 이루고 있는 민통선 마을 사람들의 사연많고 특이한 겨우살이 모습도 소개한다.

— KBS 제작, 94. 1 —

⑦ 한국재발견—명동성당

한국 카톨릭의 상징 혹은 한국민주화의 성지로 상징되는 명동성당, 명동성당을 바로 보는 한국인의 시각은 다양하다. 성소로서의 명동성당은 어떤 모습일까, 명동성당의 건립과 그 이후의 역사과정을 통해 명동성당이 한국인의 삶속에서 갖는 의미를 재조명 한다. 또한 종교적 성소로서의 명동성당 자체의 건축미와 종교적 생활을 소개한다.

— KBS 제작, 93. 12 —

■ 맵시나는 옛 복식

- ① 선 : 우리의 한복은 직선과 곡선이 서로 반전하면서 유연한 선의 흐름을 엮어낸다. 한복에는 여유가 있어 넉넉하며 이 넉넉한 흐름은 곡선으로 나타난다. 온돌방 생활에는 이 곡선의 여유가 실용성과도 관련이 있다. 여성 옷에서 보이는 한복의 선은 삼각형 A라인인데, 삼각 형태는 동양에서 천지인의 완전한 조화를 상징하고 있다. 한복에는 만드는 사람의 애정이 담백 담겨 있다. 한뼘한뼘의 바느질에 지아비를 위한 지어미의 지극한 정성이 깃들여 우아한 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옛부인

들은 대님하나에도 계질, 색감, 촉감을 꼼꼼이 생각하고 골랐다. 옛 한복에는 향기마저 풍겼다. 향기가 나는 것은 잣풀을 만들어 한복에 풀을 먹여 놓았기 때문이다. 온근한 잣내음이 배어나오는 남자 한복의 옷 향기는 지금의 어느 향수 못지 않다.

- ② 색 : 한복의 아름다움은 원색 대비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물을 살펴보면, 원색은 원색대로 썼지만 명도와 채도를 낮춘 차분한 중간색들을 즐겨 썼다. 모두 무게가 있고 세련된 색깔이었다. 우리 한복은 치자, 진달래, 앵두 등으로 옷감에 물을 들인 것이다. 이 천연 물감 염색은 한번 입고 빨면 그 빛이 바랜다. 그래서 빨 때마다 어렵게 다시 물을 들여 입었다. 이렇게 정성들여 물들인 색은 밝고 청초했다. 노랑저고리가 샛노랑이 아니듯이 한복의 색은 깊이가 있었다. 즉 본래의 한복색은 요즘의 색보다 명도와 채도를 1~2도씩 낮춘 것이다.

한복은 입는 이에 따라 엄격히 색을 배합했다. 치마와 저고리의 색은 아래가 진하고 위가 옅게 배색되었다. 대체로 미혼여성은 홍치마나 꽃분홍치마에 노랑과 연두색 저고리를 기본색으로 변화를 주었다. 색동저고리는 어른옷을 짓고 남은 짜투리를 모아 만든 4세 이하의 어린이 옷이다. 부인용 한복은 빨간치마, 남치마를 기본색으로 자주색, 가지색, 감색, 아청색 등으로 변화를 주었다. 저고리는 옅은 노랑, 옥색, 분홍색이 중심이다. 나이드는 이는 옥색과 회색등으로 단조로웠다.

특히 결혼한 젊은 여성은 겨드랑이 소매끝을 짙은 자주색으로 배색한 삼회장 저고리 또는 겨드랑이는 짙은 자주색으로, 끝동은 남색으로 배색한 반회장 저고리를 입었다. 깃과 고름을 자주색으로 대어 입으면 남편이 있다는 표시였다.

- ③ 형 : 한복 입음새의 원칙은 윗도리는 막하고 아래는 후한 것이다. 저고리는 짧고 간하게, 치마는 길고 폭을 넉넉히 했다. 여기에 고름을 많이 늘어 멋을 더했다. 길게 나부끼는 옷고름의 선은 불균형 속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다. 한복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입었을 때 기품이 흐르는 것이다. 동정깃은 아

름다운 목의 선을 드러내며 꼭맞는 동정은 정숙한 여성미를 표현한다. 치마폭에서 풍성히 우러나오는 곡선과 저고리의 배래와 도련 그리고 버선코의 곡선은 서로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우아한 형태를 만든다. 특히 궁중의상의 위풍은 어느 나라 옷에 못지 않게 대담하고 위엄이 있다.

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 도포 갓으로 대표되는 남성 한복은 단아한 선비의 풍모를 잘 나타내준다. 갓을 썼을 때 검은 망을 통해 비쳐 보이는 얼굴, 가슴위로 올려매는 도포의 끈은 부드러움과 신비감을 풍기게 한다.

■ 갓가지 김치종류와 유래

김치는 크게 보아 배추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동치미, 오이소박이로 나누며, 특색있게 김치를 담가 먹던 서울과 경기도 김치종류를 살펴보면 보쌈김치, 백김치가 있다. 궁중김치로는 췌박지가 있는데, 이것은 배추속대와 무를 알맞게 썰어 조기젓, 생낙지, 미나리, 갓에 밤과 배를 넣어 만든다. 그밖에 오이지, 순무짬지, 순무김치, 꿩김치, 숙김치, 동치미를 흔히 담가 먹었다. 양반집에서 술안주로 만든 김치도 있는데, 꿩김치, 닭김치, 생선김치, 겨자김치가 그것이다. 꿩, 닭, 생선은 젓갈처럼 처음부터 양념속에 넣어서 익힌 것이 아니라 꿩이나 닭을 삶아서 시원한 열무김치 국물에 담가 두었다가 안주상에 올린다. 생선김치는 생선의 흰살을 얇게 베어내어 녹말에 묻혀서 불에 데쳐 익힌 다음 차가운 김치와 같이 담아 먹던 것이다. 겨자김치는 통배추를 데쳐서 양념과 해삼, 전복을 켜켜로 넣어 싸고 겨자를 고루 뿌려서 익힌 김치이다.

함경도 평안도는 추운 지역이라 김치가 짜지 않고 고춧가루를 쓰지 않아 시원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함경도의 콩나물김치, 쑥갓김치, 평안도의 가지김치, 백김치, 황해도의 호박김치, 고수김치, 갓김치가 맛이 있다.

충청도는 젓국보다 서금으로 간을 한다. 박김치, 열무김치, 가지

김치, 시금치김치, 새우젓깍두기가 있다. 강원도는 늦은 봄까지 먹도록 저장을 한다. 채김치, 동치미, 창란젓깍두기가 좋다. 경상도는 멸치젓을 써서 국물이 안나게 하여 짜게 만든다. 우엉김치, 속새김치, 부추김치, 콩잎김치, 깻잎김치가 있다.

전라도는 젓갈을 많이 쓴다. 조기젓, 밴댕이젓, 병어젓을 비롯해 여러 젓갈을 넣어 맛깔스런 김치를 만든다. 고들빼기 김치, 갯쌈김치, 굴깍두기 등으로 매운 맛이 세다. 제주도는 해물을 써서 만든 전복김치, 해물김치와 또 얼큰한 나박김치가 맛난다.

각 지방의 김치를 보면 배추와 무우만이 주 재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오이, 깻잎, 고들빼기, 호박, 가지, 콩잎, 갯, 부추, 고구마줄기, 전복도 김치의 재료가 되고 있다.

(한국의 멋 맛 소리, 1995)

모르는 지식 아는 무지

개 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백번듣기 보다는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또한 한번 보기 전에 그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해 놓는다면 한번의 만남을 그만큼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접해보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국제인으로서의 감각을 키워보도록 한다.

목 적 세계 여러나라의 문물을 익히고 그 특성을 알아 보는 활동을 통해 국제인, 세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감각과 폭 넓은 이해력을 키운다.

활 동 1 아는 만큼 본다

한 미술가가 우리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아는 만큼 본다”라는 말을 했다. 이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식과 그것에 대한 관심, 흥미 등이 있을때 쉽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즉, 그 지역을 잘 알수록 큰 기쁨을 맛보고, 나아가 더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여행할 때 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신문물을 읽을 때 지리 지식이 있으면 그 작품을 더 잘 감상할 수 있다. 문학 배경을 잘 아는 것이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또는 감상하는 데 필수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교류의 기초단계로서 그 나라의 지리와 기후에 대한 정보를 익히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활동방법

강의 및 토론

활동과정

- ▶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에 대한 강의를 그 나라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 즉 자연이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로 연결한다.
- ▶ 한 나라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여행해 보고 싶은 나라별로 모둠을 정하여 그 나라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들을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들과 연관시켜 신문을 제작한다.
- ▶ 각 모둠이 완성한 신문을 모아 국제교류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엮는다.

활동 2 동화속으로...

동화는 옛날 이야기, 민담, 신화, 전설등 여러가지 형태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런 것을 통틀어 전래동화라고 부른다. 오랜 역사를 가진 옛날 이야기는 인간지식의 집대성으로 일반대중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화나 전설은 어떤 시대의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나라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오랜 역사를 가진 옛날 이야기를 그 나라의 문화와 지리적 배경등에 주의하면서 읽어본다면 국제교류를 준비하는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동화를 접하여 이미 외국의 많은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동화를 다시 한번 그 나라의 여러가지 배경과 함께 감상해 보아 국제인으로서의 감각을 익혀 보도록 한다.

활동방법

게시 및 역할연기

활동과정

- ▶ 기억에 남는 동화를 적어 쪽지에 써 내고, 이것을 토대로 모둠을 구성한다.

- ▶ 모둠별로 선정된 동화의 배경이 된 나라에 대해 각자가 알고 있는 것을 모아서 정리한다.
- ▶ 선정된 동화의 줄거리중 한 부분을 등장인물 중심으로 각본을 짠다.
- ▶ 각본을 바탕으로 각자 역할을 맡은 후 연극을 한다.
- ▶ 이때 각 모듬의 대표는 동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배경이 된 나라에 대하여 동화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 ▶ 동화와 그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한 모듬에게 상을 준다.

활동 3 세계가 한눈에...

국제교류라는 것이 거창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대통령이 외국의 원수를 방문하는 것까지 모두 국제교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것은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것이다. 우리의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것을 외국에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다해도 외국에 나갔을때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면 우리의 준비자세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외국의 경우 컴퓨터 게임에서조차 세계 각국의 지형과 기후부터 시작해서 문명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교육용 게임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게임을 통하여 세계각국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훌륭한 국제교류준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컴퓨터 게임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게임을 통하여 재미, 흥미와 국제적인 감각을 동시에 익히고자 한다.

활동방법

게임

활동과정

- ▶ 커다란 놀이판을 만든다.
- ▶ 놀이판에 들어갈 나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넣는다.

♪♪☆ 출발  한번 더!!	일 본	이탈리아	중 국	한번 쉬세요!!
인 도	주사위 던지는 곳!!			프 랑 스
호 주				홍 콩
독 일				미 국
Bonus!!	태 국	영 국	멕시코	숙박료!!

- ▶ 2개의 주사위로 던져서 나온 수 만큼 칸을 움직여 그 칸에 해당하는 나라의 문제를 맞춘다.
- ▶ 문제는 나라별 문제 바구니를 만들어 색종이에 문제를 적어 접어 넣은뒤 제비뽑기하여 고른 문제를 맞춘다.
- ▶ 나라별 문제 바구니에는 각 나라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 즉 인사말, 기후, 자연, 인종, 위치, 언어, 민족성, 수도이름, 문화재 등을 담는다. 이때 각국에 해당하는 문제는 미리 VTR을 시청한 후 그것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예시 : 규 칩

한번더!! : 한번 더 할 기회가 있다.

한번 쉬세요!! : 한 판을 쉰다.

숙박료!! :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 숙박료를 다른 게임참가자에게 지불한다.

Bonus!! :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 보너스 점수를 받는다.

유의사항

- ▶ 더불어 신문을 제작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사진들을 많이 준비해 두어야 하며, 사진등이 없을 때는 그림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동화를 선정할 때는 외국 신화나 설화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그리스 신화, 단군 신화 등).

도움자료

▣ 교실밖 지리여행

기후는 단순히 위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의 거리, 지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각 지역마다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기후인자가 다르므로 각 지역의 특징도 달리 나타나게 된다. 각 지역의 기후 특징은 다시 그 지역의 식생과 토양, 의식주와 생업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각 지역의 기후 차이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데에도 차이가 나게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 지역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눈을 연상한다. 남반구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비키니를 입고 수영하는 모습을 연상하기도 하며,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건조하고 뜨거운 모래 바람을 연상하기도 한다(교실밖 지리여행, 1994).

▣ 동화의 나라

- ① 영원한 동화의 마을, 이탈리아의 볼로디(전세계 어린이들의 친구 ‘피노키오’의 고향)

빨간 모자를 쓴 나무인형이 그려진 예쁜 동화책을 주시며 어

머니는 내게 말씀하셨다. 거짓말을 하면 주인공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진다고..., 이탈리아의 콜로디 Collodi는 피노키오를 쓴 작가의 어린시절 추억이 배어있는 곳이다. 콜로디 마을 입구에 닿으면 숲이 어우러진 틈으로 빨간 철조물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피노키오가 전세계 어린이들의 소중한 친구가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다시 피노키오의 주인공들과 함께 모험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곳인 피노키오 공원이다. 1951년에 플란도 안젤로티 박사가 작가인 카를로 로렌지니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의 대표작 ‘피노키오’를 이용하여 공원을 만들 것을 기획하고 1953년 전세계에 이를 발표했다. 그리하여 유명한 건축가와 디자이너 중에서 에밀리오 그레코와 벤추리노 벤추리가 선정되어 1956년에 각각 피노키오 조각과 모자이크 공원을 완성시켰다.

콜로디는 아주 작은 마을이다. 호텔도 택시도 경찰도 없는 그런 마을이다. 카를로 로렌지니가 피노키오를 쓰고 ‘콜로디’라고 사인한 것은 아마도 이 작은 마을의 소박한 아름다움에 반했기 때문인 듯하다. 동화 피노키오에서만 볼 수 있는 주인공 피노키오와 제퍼트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 이같은 작품 배경을 그리 넓지 않은 이곳 콜로디 사람들은 모두 갖추고 있었던가 보다. (모닝캄, 1994. 5.)

② 알렉산더 뒤마의 소설 〈삼총사〉

〈삼총사〉의 주인공 달타냥. 그가 정말 실재했던 인물이며 1611년 가스꼬뉴 지방의 한 성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 시대에는 귀족 가문의 경우 장남만이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었으며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들은 자신의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 프랑스의 왕에게 봉사하는 길을 택하곤 했다. 혈기가 넘치고 무모하다고 할 만큼 용감했으며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다정다감한 성격의 달타냥 백작(진짜 이름은 샤를로드 바즈 드 카스텔모르이다)은 그 길을 택했고 가스꼬뉴 지방의 전설적인 영웅이 되었던 것이다(모닝캄, 1995. 2).

■ 참고서적

- ① 배낭메고 세계로－유럽편－ CD ROM
- ② 젊은 여행자들, 자유여행 정보집 1~4

■ 비디오 영상물

①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인구 1,700만명의 국민 대다수가 불교신자인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국토가 남한의 3분의 2 정도 크기인 6만 5천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열대성 기후와 국토의 중남부가 고원지대인 스리랑카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알아보고 1차 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생활상을 소개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석가 열반상, 수 많은 사원과 수도원, 동굴사원, 세계 최대의 불교축제, 시기리야 바위섬의 왕궁겸 요새, 가면 박물관, 홍차생산 과정 등을 소개한다.

－ KBS 제작, 91. 12－

② 신이 만든 나라, 멕시코 고대문명

인디오들이 일으킨 멕시코의 고대문명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멕시코의 중앙고원에 인류가 처음 나타난 것은 2만 5천년전이며 그들이 기원전 5천년 경에 그 곳에 정착하여 척박한 땅을 일구며 옥수수를 재배하고 자연신을 숭배하며 문명을 일으켰다. 그들은 태양력을 사용했고 금성의 주기도 정확히 관찰했다. 멕시코의 마야문명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신 숭배의식인 회전놀이과 공놀이 등을 고대 유적과 함께 소개한다. － KBS 제작, 90. 10 －

③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

일본은 아시아 대륙 동쪽 태평양상에 44개의 큰 섬과, 3,9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토의 길이가 3,800km이며 면적은 한반도의 약 1.5배 크기인 378,000km², 그리고 인구 1억 2천만명의 고도로 발달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위에서 이룩한 그들의 저

력은 무엇이며, 지리적으로 이웃인 우리와의 역사적 배경과 오늘날의 일본을 자세히 살펴 본다.

— KBS 제작, 90. 12 —

④ 영원한 이슬람왕국 사우디 아라비아

인구는 1천만, 면적은 남북한의 10배가 넘고, 광활한 사막에 풍부한 석유자원, 이슬람을 일으켰던 마호메트가 태어난 영원한 이슬람왕국 사우디아라비아, 1938년 석유가 처음 발견된 이래 지구전체 매장량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를 경제기반 삼아 부를 일으킨 나라이다. 신앙고백, 예배, 회사, 단식, 순례 등 5개 항목을 이슬람의 근본 신조로 삼고 있는 이 나라의 고난과 투쟁의 역사적 배경과 일상의 종교생활 모습을 알아 본다. — KBS 제작, 90. 8 —

⑤ 흑해의 돌풍 불가리아

불가리아 맥을 이어 온 중세기 회람정교회 릴라 수도원과 보물인 목재 십자가, 성 게오르 성당, 성 페트카 성당 등 주요 문화재를 소개하고 금메달 12~15개로 서울 올림픽 종합 4위를 노리는 불가리아의 경기 종목별 전력을 알아 본다.

— KBS 제작, 88. 8 —

⑥ 대 시베리아 횡단철도 (1) 해빙

페레스트로이카 선언 4년째를 맞은 소련사회를 소개한다. 집지사 노보이미르에 근무하는 아나톨리 김, 성악가 루드밀라 남, 로큰롤 가수 발레리 박, 발레리나 스베틀리나 최 등 동포들의 모습도 담았다.

— KBS 제작, 89. 7 —

⑦ 대 시베리아 횡단철도 (2) 시베리아

광활한 면적을 가진 시베리아의 자연과 횡단철도의 건설역사, 개방 현황을 알아 본다. 과학자 도시로 불리는 노보시비르스크를 찾아 그곳 경제연구소 관계자와 별채작업을 하는 인부,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담았으며, 바이얼린 콩쿠르, 발레학교도 보여 준다. — KBS 제작, 89. 8 —

⑧ 동방을 보라 — 말레이시아

일본과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태평양 시대에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공업화의 기치를 내걸고 급격히 부상함으로써 점차 넓어지고 있는 변화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모색해 본다. — KBS 제작, 89. 7 —

국가의 만남

역사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큰 인물 큰 그릇

역사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개 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은 역사라는 인류의 흔적을 남긴다. 경이롭게도 과거에 속하는 역사는 또한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 되고, 인간은 역사의 흐름을 답습하면서 또다른 역사를 창출한다. 그러므로 한국사를 알면 세계사는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우리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여 보다 거시적인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목 적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서 세계 역사와의 관련성과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아보고 나아가 미래 역사의 거울로 삼아보고자 한다.

활 동 1 민중의 사랑과 분노 그리고 꿈...

우주속에서 생성된 지구에 생물이 살기 시작하고 마침내 인류가 지구라는 터전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성공과 좌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에 의하여 이끌어져 왔다. 역사를 민중의 역사라고도 하는 만큼 역사는 바로 민중의 삶과 고뇌가 뒤얹힌 민중의 염원에 의해 움직인 거대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역사의 주체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민중의 삶이 엮어낸 산물이다. 그렇다고 역사에서 위인들의 역할을 간과하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역사가 어느 특정 위인의 역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과서 속의 역사공부가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흐름과 그 시대를 이끌었던 민중들의 삶을 공유해 보면서 역사를 재조명하여 보고 나아가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세

계속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활동방법

시청각 강의 및 토론

활동과정

- ▶ 모두가 모여 민중의 움직임으로 이끌렸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보고 그에대한 강의를 듣는다.
- ▶ 3~4명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앞선 강의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토론한다.
- ▶ 자신이 만약 그 시대의 인물이었다면 역사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 ▶ 우리 민족성을 글, 그림, 사물, 사진 등 여러가지로 표현한다.
- ▶ 그 중에서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상을 준다.

활 동 2 역사신문 만들기

우리는 신문을 통해 그날 그날 일어난 사건을 접하고, 해설기사를 보고 그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며, 사실을 읽고 이것을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된다. 사건들의 묶음을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그냥 저장 흘려가는 사건들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즉 역사는 우리 삶의 실체이자 거울이다. 또한 역사는 각 민족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만큼 역사를 이해하고 비판적 안목을 키운다는 것은 세계속에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을 통해 역사를 생생하게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객관화시켜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해봄으로써 역사의 흐름에 대한 객관적, 비판적 안목과 나를 올바르게 알고 있다는 자신감, 주체성을 기르고자 한다.

활동방법

토론 및 게시

활동과정

- ▶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대별 또는 사건별등 무엇으로 나눌지 여러 가지 기준을 선정한다
- ▶ 각자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모둠을 구성한다.
- ▶ 각 모둠은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 ▶ 자료를 모을 때 많은 제한점이 있겠지만 아는 것을 토대로 하고 사진이 없을 때는 그림으로 표현한다.
- ▶ 역사신문을 만들 때는 과거의 기사를 쓰는 것이지만 시제를 현재에 맞추는 것에 유의한다. 그러므로 과거로 돌아가 그 당시의 신문을 제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 각 모둠이 완성한 각각의 기사를 모아 하나의 역사신문을 만든다.

□ 예시 : 건국의 뒷 이야기들 : 난생신화

말이 하늘로 올라간 자리에 푸르스름한 커다란 알

(신라시조 박혁거세)

진한 땅에는 일찍이 여섯개의 마을이 있었다. 어느날, 6개 마을 중 하나인 고허촌장이 나정이라는 우물 옆의 숲을 바라보니 말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상히 여겨 가보니 말은 긴 울음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버리고, 다만 있는 것은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큰 알뿐이었다.

그 알을 쪼개었더니 생김새가 단정하고 아름다운 사내 아이가 나왔다. 여섯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의 출생이 이상했던 까닭에 높이 받들어 그 아이가 열세살이 되자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임금은 자신이 나온 말이 박처럼 생겼다 하여 성을 박씨, 세상을 빛으로 다스린다 하여 이름을 혁거세라고 했고 국호는 신라라 했다.

혁거세가 태어날 무렵, 알영이라고 하는 우물에 용이 나타나 오른쪽 끝빛대에서 한 계집아이를 낳았다. 태어난 우물에서 이름을 딴 알영이 자라매 성품이 어질고 인물 또한 곱다하여 혁거세는 알영을 왕비로 맞이했다.



수태한지 7년만에 낳은 알

(석탈해 난생신화)



탈해는 본래 다파나국 출생이다. 다파나 왕이 여국왕의 딸을 데려다 아내를 삼았더니 수태한지 7년만에 큰 알을 낳았다. 이에 왕이 팔하기를 “사람으로서 알을 낳는것은 좋지 못한 일이니 갖다 버려라”라고 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알을 큰 껍질에 넣어 바다에 띄워 보내 이 껍질이 신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때 해변의 노모가 껍을 발견하고 아이를 키웠는데 그가 바로 석탈해이다. 박혁거세가 재위한 지 39년 되던 해의 일이었다.

신라 바닷가에 처음 껍질이 와 닿았을 때 까치 한 마리가 따라다녔으니 까치 작(鵲)자의 한쪽을 취하여 석(昔)씨로 성을 삼고, 또 아이가 껍을 풀고 나왔으니 이름을 탈해(脫解)라 지었다 한다.

처음에는 고기잡이로 업을 삼아 노모를 봉양했는데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 학문을 배워 이름을 떨치도록 해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학문에 힘썼으며 여러가지 재주를 익혔다.

활동 3 문학이 담고있는 역사의 풍속

역사와 문학은 모두다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역사책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느껴볼 수도 있지만 전통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어쩌면 역사책에서 느낄 수 없는 민중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역사가 우리에게 거시적인 시간의 흐름을 일깨워 준다면 문학이라는 것은 좀더 미시적인 민중들의 삶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문학인 고전문학을 우리는 파분하고 지루하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다. 엘리어트의 말에 따르면 전통은 도서

관에 안치되어 있는 과거의 문학이 아니고 오늘도 그 생명을 지닌 문학을 말한다. 따라서 오늘의 문학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고전문학에는 그 시대를 살아온 선인들의 아픔과 환희, 절규가 아로새겨져 있고,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한과 꿈이 여러 장르에 걸쳐서 형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고전문학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과 우리 선인들의 풍속등을 익혀 미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세계속에서의 정체성을 습득하고자 한다.

활동방법

게임 및 토론

활동과정

- ▶ 우리나라 고전문학의 제목과 작자중 하나만을 종이에 써서 접어 따로 따로 바구니에 넣는다.
- ▶ 남녀가 나누어 바구니에서 접은 종이를 하나씩 고른다.
- ▶ 문학작품의 제목과 작자를 서로 맞추어 짝을 이룬다.(4명이 모둠을 이루도록 두개씩 종이에 적어 넣는다.)
- ▶ 문학작품에 대한 줄거리 및 시대배경, 본문 등을 발제하여 지도자가 문제를 내면 그 작품에 해당하는 모둠이 문제를 맞춘다.
- ▶ 어느정도 작품에 대한 정보를 문제를 통해 익히고 나면 각 모둠에 해당하는 작품을 나누어 준다.
- ▶ 각 모둠은 문학작품을 탐독한 후 그 속에 담고 있는 문화와 풍습, 관습 등을 현재와 비교하여 정리한다.
- ▶ 정리한 것을 접어 바구니에 넣고 다시 뽑는다.
- ▶ 뽑은 내용을 서로 읽으며 토론한다.

□ 예시 : 박지원의 양반전

이 작품은 부농이 등장하여 경제력에 의한 양반신분 획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료사회의 부정이 깊어졌으며 몰락양반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는 등 조선 후기의 역사적 상황이 작가의 간결한 필치에 의해 잘 묘사된 작품이라 하겠다.

그 마을에는 부자 한사람이 살고 있었다. 양반이 봉변을 당하게 된 내력을 듣고 집안끼리 의논이 벌어졌다.

“양반이란 아무리 가난해도 항상 존귀하고 영화스러운것.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항상 비천할 뿐 아니라 기가 죽어 허리를 굽혀 걸어가고, 기어서 뜰에 절을 하며 코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여 무릎으로 기다시피 하니 우리는 항상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양반이 가난하여 관곡을 갚지 못하여 군색을 당하게 되었다니, 이제는 그 양반을 지탱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양반을 사서 행세하는게 어떻겠는가.”하고는 부자는 즉시 양반의 집에 이르러 자기가 관곡을 갚겠노라고 자청했다. 양반이 크게 기뻐하고 허락했다. 이에 부자가 관곡을 관청에 실어다 주어 그 관곡을 모두 갚아 주었다.

군수는 영문을 모르고 깜짝 놀라 양반을 찾아 위로하고 관곡을 갚게 된 까닭을 물었다. 양반은 병거지를 쓰고 잠방이 바람으로 땅에 엎드려 ‘소인’, ‘소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군수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군수는 더욱 놀라서 양반을 붙들어 일으키면서 말했다.

“선생님 스스로 낮추어 욕되게 함이 이 같으십니까?”

그러나 양반은 더욱 황송해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하는 말이

“황송하웁니다. 소인이 감히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양반을 팔아서 관곡을 갚은 것이웁니다. 하오니 저 건너 부자가 이제부터는 양반입니다. 소인이 다시 어찌 옛 모양으로 거만을 부려 스스로 높일 수가 있습니까?”

듣고나서 군수는 탄식하였다.

유의사항

- ▶ 프로그램 진행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자

료는 글 뿐만이 아니라 사진과 시청각 자료를 곁들인다.

- ▶ 우리나라 고전문학에 대한 자료는 풍부하게 준비하여 놓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수준으로 문제를 제출하여 고전문학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로 이끈다.

도움자료

■ VTR 작품 목록

① 역사탐험, 민중의 함성 — (1) 미명

개항 전후 외세 접근에 대한 두가지 양상이었던 보수와 진보의 갈등속에서 빚어지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 일련의 개항기 사건을 접하고 양반 봉건체제에 순치되어온 민중이 주권재민의 반봉건적 의식을 가지고 동학운동을 일으키기까지의 19세기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조명한다.

— KBS 제작, 89. 11 —

② 역사탐험, 민중의 함성 — (2) 새야새야

동학혁명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동학운동이 전개되었던 현지를 취재 당시 동학군의 활동상, 척외양이의 현실적 당위, 제폭구민의 반봉건적 의식에 대한 양상들을 살피고 자유민주주의가 해방후 외세에의해 무상으로 공여된 것이 아님을 동학혁명 당시의 상황을 통해 분석 조명한다.

— KBS 제작, 89. 12 —

③ 역사탐험, 민중의 함성 — (3) 들불

일제침략 이후 고난의 역사속에서도 끊임없이 꿈틀거리던 민족혼의 현장을 취재하여 19세기말 동학혁명 이후 이땅에 뿌리박은 민족의식이 3·1운동과 광주학생 운동이라는 거족적인 항일 구국 투쟁으로 전개되어가는 과정과 그러한 구국 투쟁 끝에 형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체제가 주권재민을 실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되새긴다. — KBS 제작, 89. 12 —

④ 역사탐험 - 역사속의 민중

민중의식은 19세기말 왕조의 봉건적 억압과 1945년 외세와 국토분단, 1970년대의 비민주적 정치상황속에서 싹트기 시작했고, 따라서 민중은 관념적, 추상적 존재가 아니고 실체적 존재로서 역사발전의 주체가 되어 왔다는 민중의 의미와 역할을 정리해 본 프로그램. - KBS 제작, 89. 12 -

■ 신문으로 엮은 한국 고대사, 역사신문1:사계절

우리나라 역사를 구석기 시대부터 통일신라 전까지 신문으로 엮은 것으로, 사진, 재미있는 그림과 더불어 역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또한 해외소식란에 세계사도 함께 실어 과거 역사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 수 있다.

■ 참고 서적

- ① 구인환, 고교생이 알아야 할 고전.
- ② 한국고대사문제연구소, 길따라 유적따라 - 한국역사기행.

큰 인물 큰 그림

개 요 어느 시대에도 위인은 있기 마련이다. 이들 위인은 정치, 경제, 문화속에서 그들의 영역을 빛내고 이끌어 왔다. 지금의 시대도 역시 세계 곳곳에서 미래의 역사를 이끌어갈 위인들이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있다. 현재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소리없는 일꾼들과, 우리의 정신세계인 문화를 이끌었던 예술인들의 세계를 접하여 보고, 세계사를 바꾸었다고 할만한 세계사속의 위인들에 대하여 익혀보고자 한다.

목 적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반드시 습득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세계의 흐름이며, 이러한 세계의 흐름속에서 우리들의 위치는 어떠한 지를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해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 선인들의 삶과 현재 우리들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을 엮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세계의 흐름에서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살아가는 선인들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바른 세계관을 갖출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활 동 1 세계속의 경제

세계화 국제화라는 것은 경제의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하나의 부산물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때 자국의 상품을 팔기 위하여서는 시장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자국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따라 재화의 교환만이 아니라 그밖의 것들이 교환되기도 한다. 더구나 요즘에는 각 나라의 문화를 상품화하여 수출한다고 하니 세계화, 국제화가 모두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적 전략과 실상을 알아봄으로써 그 안에 내포된 그 나라의 민족성과 문화를 접하여 국제인으로서의 감각을 익힌다.

활동방법

시청각 강의 및 토론

활동과정

- ▶ 모둠을 4~5명으로 나누어 경제가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유롭게 토론한다.
- ▶ 토론을 마친 후 어느 나라의 경제에 대하여 시청각 강의를 듣고 싶은지 의견을 모은다.
- ▶ 지도자는 모둠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보여준다.
- ▶ 시청각 강의를 마친 후 그 나라 경제성장과 민족성을 관련시켜 이해한다.
- ▶ 우리나라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한 모둠에서 2가지씩만 제시한다.

활 동 3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참을 수 없는 열정을 분출시키기 위하여 어떤 방식을 택할까?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다 많은 끼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은 또한 어떨까? 아마도 예술가들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열정과 끼로, 고난스럽지만 찬란하고도 굵은 삶을 택하는지도 모른다. 예술가중에서 화가는 자신의 열정과 끼를, 그리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색채와 붓놀림으로써 화폭에 담아낸다. 그래서 그림을 들여다 보면 화가의 열정, 끼, 내면세계까지도 읽을 수 있다.

물론 그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보아도 전혀 감흥을 느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예술의 분야에 눈을 돌리고 살 수는 없지않은가? 더군다나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속에서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매개인 예술 작품을 감상할줄 안다는 것은 국제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본 활동에서는 열정과 끼를 가지고 인생을 짧게 살다간 화가들의 그림을 감상하고, 더욱 능동적으로 화가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예술품에 대한 안목과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자 한다.

활동방법

슬라이드 강의 및 실습

활동과정

- ▶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 1853~1890)의 자화상 (캔버스 유채 65×45cm)과 그 밖의 화가들의 자화상들을 슬라이드나 사진, VTR자료로 감상한다.
- ▶ 감상의 느낌을 글로써 표현한다.
- ▶ 그림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 화가의 성장배경, 시대배경, 그림의 해설 등
- ▶ 화가들의 자화상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고 난 후 각자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다. 물감, 크레파스, 파스텔, 유화 등 자유로운 도구를 선택하되, 자화상에 자신의 현재의 기분, 상황, 내면세계를 그린다.
- ▶ 그림이 완성되면 그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림을 벽에 게시하여 함께 감상한다.

활 동 3 세계의 축제

사람들은 세계 각국을 여행할 때 그 나라의 전통적인 풍물이나 그 나라의 행사를 보고 싶어 한다. 세계각국에서 저마다 나름대로 개최하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예술 행사는 그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호기심과 이국적인 풍취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자극 매체가 된다. 그러나 여행하고 싶은 나라에서 열리는 행

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모르는 채 여행을 한다면 그 나라를 여행한 것은 헛수고가 된다. 반대로 각 나라의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정보가 여행지를 선택하게 해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행사를 사전에 미리 접하여 봄으로써 외국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흥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더 나아가 외국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활동방법

게시 및 실습

활동과정

- ▶ 지도자는 계절에 따른 세계 각국의 행사를 정리하여 사진자료와 같이 준비한다.
- ▶ 게임을 진행할 모둠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별로 한 모둠에 3-4명이 되도록 나눈다.
- ▶ 지도자는 각 모둠에게 자료를 나누어 준다.
- ▶ 각 모둠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세계의 축제달력을 만든다.
- ▶ 계절별로 모둠을 나누기는 했지만 달력을 만들 때는 달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만든다.
- ▶ 달력이 완성되고 나면 모두 모아 게시를 하고, 달력의 내용을 찬찬히 살피고, 각 모둠에서 여행 계획을 세운다.
- ▶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누가, 언제, 어디를, 왜, 얼마동안 여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 예시 : 나는 이번 여름방학때 친구 3명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마침 이전에 친구들과 만들어 놓은 세계축제 달력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구체적인 일정표를 짜기로 했다. 참가자 : 나(혜련), 태지, 미경, 기훈 / 언제 : 여름방학 일주일 / 어디 : 동남아시아 / 왜 : 동남아시아의 문화를 접해보고 우리의 것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문국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3월	국제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호주), 멜버른 오사카 요트 레이스(호주), 람두안 꽃축제(태국, 문화행사로 향토 음식 및 토산품 전시회, 향토시장 열림), 하나마 쓰리(일본, 여자어린이들을 위한 것으로 ‘히나’인형 셋트와 가구의 모형을 진열), 연례 화목 예술 페스티벌(사이판, 문화행사), 재즈 페스티벌(스위스)
4월	청치우 빵 축제(4월말에서 5월 초, 종교행사, 축제행렬, 중국각국, 홍콩), 유레카 제즈 페스티벌(호주), 멜버른 코메디 페스티벌(호주), 캔버라 국제 가구 페스티벌(호주), 파타야 축제(태국), 석가탄신일(일본)
5월	카마탄 축제(말레이시아, 민속무용을 비롯한 다채로운 축제), 국제연날리기 대회(말레이시아), 국제 난축제(말레이시아), 야소톤 로켓 축제(다양한 로켓에 불을 붙여 날아가게 함, 태국), 하카타 돈타쿠(갖가지 모습으로 분장한 시민들의 시가행진, 일본), 가마우지 낚시(조련된 새로 온어를 낚는 고대의 방법, 일본)
6월	가와이 다약축제(전통게임, 말레이시아), 쿠오피오 댄스 & 음악페스티벌(핀란드), 피타콘 축제(불교의 전래동화에 그 유래를 두고 있는 축제로 요정복장을 하고 행진을 하며, 스님들은 부처의 깨달음 이전의 고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암송한다. 태국), 모내기 축제(신사의 눈에 모를 심는 의식, 일본)
7월	꽃축제(말레이시아), 플랑탕 드럼 페스티벌(말레이시아), 카우스티넨 민속 음악 페스티벌(핀란드), 쏫블 축제(불교의식과 관련,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조각된 밀랍 양초, 태국), 하카타 야마시사(‘야마가사’ 합대의 행렬, 일본), 기온마 쓰리(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일본)
8월	카메룬 고원 꽃축제(말레이시아), 칸토마쓰리(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타나바타’행식, 일본), 타나바타(칠석제, 일본에서 가장 성대한 칠석제, 일본), 하와이 국제 빌 낚시 대회(하와이), 슬랙 키 기타 페스티벌(감미로운 하와이 기타 연주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페스티벌), 취리히 영화주간(스위스)
9월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축제, 원숭이 신의 탄생일(싱가폴), 피치트 보트 경주대회(태국), 요리와 과일축제(태국), 야부스에(말을 타고 활을 쏘는 매력적인 운동으로 미술과 궁도를 겨뤘던 봉건시대를 상상하게 한다. 일본), 알로하 주간 축제(하와이 최대축제), 와이키키 격류 수영대회(하와이), 뉴질랜드 공예품 전시회(뉴질랜드)

10 월	클랑탕 팡이 돌리기 경기(55kg의 팡이 돌리기,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사파리 (1,500km의 거칠고 험한 지역을 10일동안 자동차로 탐험하게 되는 값진 도전, 말레이시아), 푸켓 채식주의자 축제(태국), 오킨치(우산모양의 장식으로 가득 히 꾸며진 짐마차와 중국에서 전해진 춤들도 선보임, 일본), 지다이마쓰리(794년에 교토가 일본의 옛수도가 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축제, 일본), 마카히키 축제(고대 하와이 사람들의 평화기원 행사를 재현하는 축제), 철인경기(하와이), 칠썩 주간(뉴질랜드)
11 월	국제 보물 찾기(전세계에서 모인 기자단이 자동차로 보물을 찾는 경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전통 문학작품 전시, 원숭이를 위한 중국 음식 축제(태국), 실크 전시회(태국), 토리노이치(쿠마테라고 불리는 행운을 상징하는 대나무로 된 갈퀴를 판다, 일본), 꽃 페스티벌(뉴질랜드)
12 월	이산 연날리기 축제(민속 예술공연, 태국), 치치부 요마쓰리(일본 3대축제의 하나), 기시사이(아코의 47인의 로닌들이 일으켰던 유명한 항쟁을 기념하는 축제로 나혼바시에서 기념의식이 행해진다, 일본)
1 월	시드니 페스티벌(호주), 호주의 날 축하행사, 보상 우산전(우산을 선보이거나 경연대회를 통해 전통 공예 기법과 솜씨를 선보임, 태국), 용과 사자 퍼레이드(태국)
2 월	구정(홍콩), 연등축제(음력 1월 15일, 홍콩), 싱가포르 강 홍파오 특별행사(구정기간중에 열림, 등불, 장터), 멜버른 음악 페스티벌(호주), 태국 전통 스포츠 민속 놀이축제, 꽃 축제(꽃 전시, 수예품 판매, 미인 선발대회, 태국), 삿포르 눈축제(눈으로 만든 조각, 일본), 카스기신시의 등축제(일본)

도움자료

■ 비디오 영상물

- ① 신유럽이 다가온다. -- 커진 시장, 좁아진 매장
- ② 신무역시대, 특허전쟁 -- 세계제일을 지킨다(독일, 영국편)
- ③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 (2) 일본적 실용주의

상영시간 : 60분, 방영일자 : 94. 8

일본인은 명분과 실리를 엄격히 분리한 상태에서 실리를 추구한다. 이러한 일본 실용주의의 연원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형태의 일본자본주의를 형성시켰고, 그 한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 ④ 세계가 뛰고 있다. 디자인에 승부를 걸어라— (4) 한국 산업 디자인 그 현주소

상영시간 : 40분, 방영일자 : 94. 6. 9

지금까지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선진외국의 사례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디자인 실태,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교육현장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 산업디자인 진흥정책 등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현실과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 ⑤ 세계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5) 기술 한국의 선택—한국편
- ⑥ 세계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4) 작은 강국 기술비결—스위스, 스웨덴
- ⑦ 세계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3) 국경없는 기술통합—EC
- ⑧ 세계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2) 다시뛰는 기술대국—미국
- ⑨ 세계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1) 모방에서 창조로—일본

(KBS 영상사업단)

■ 자화상 : 고희

불꽃처럼 살다간 비운의 사나이 빈센트 반 고희, 네덜란드 작은 마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오베르의 교회〉를 그린지 두 달뒤인 1890년 7월 30일 이 교회 앞의 드넓은 보리밭에서 생의 마침표를 찍는다. 권총으로... 런던의 미술품 상점의 점원이

던 고희는 하숙집 딸에게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그때 나이 열여섯이던 고희의 사랑은 무참히 깨지고, 그는 사랑의 상처를 입는다. 77년 모든걸 잊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공부를 하지만 실패로 돌아간다. 탄광촌을 전전하던 고희는 어릴적부터 좋아하던 그림에 매달리면서 화가의 길을 걷는다. 이때부터 동생 테오도르는 형을 믿고 도왔으며, 고희는 죽을때까지 동생의 보살핌을 받는다. 80년 브뤼셀의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우면서 급속히 화가로서의 실력을 쌓아간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과 병고, 그리고 빈곤으로 상처를 입고 파리로 떠난다.

■ 프랑스 남부인 프로방스 지방의 밝고 아름다운 풍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아비뇽의 연극제

아비뇽의 대로인 레프블릭 거리를 따라 시내로 들어가노라면 곧 연극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아비뇽에서 연극제가 처음 열린 것은 1947년이다. 당시 레네 샤르, 이본느, 크리스티앙 제르보 등 세명의 작가가 구축이 되어 현대 예술전시회를 아비뇽의 구 교황청에서 개최했는데, 그때 그들이 ‘장 빌라르’라는 유능한 연극 연출가를 초빙하여 프랑스에서 공연되지 않았던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2세’를 공연했다. 그때 장 빌라르는 이 아비뇽이라는 곳이 야외 연극의 장소로서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가진 것에 매료되어 본격적으로 연극제를 개최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모닝캄, 1994. 10)

지구촌 한가족

민주 평등 자유를 향해
봉사로 세계를

민주 평등 자유를 향해

개 요 선진복지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민주, 자유, 평등 이념이 정립된 배경과 사회에 미친 영향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것을 생활속에서 체득해가는 과정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인 세계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지녀야 할 가치를 탐색한다.

목 적 오늘날 세계사회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선진국가들의 힘은 민주, 평등, 자유, 박애 등의 이념을 꾸준히 실천하고 성취하는 데서 나온다. 그리고 이같은 이념을 청소년들의 교육과 지도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가의 청소년들은 민주적 방식과 토의과정 그리고 자유의지와 인간에 대한 평등가치와 끝없는 박애정신을 배우고 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이념은 어떤 생활습성을 통해 내재화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국제교류에 있어 청소년과 선진국가를 움직이는 사상을 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활동 1 권리와 의무

서구선진국가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기독교는 종교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의 생활속에 뿌리박혀 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사랑은 의무이다. 그들은 사랑속에서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배웠으며,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방법을 습득했다. 좋은 사마리아인이 되기 이전에 그들은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서구사회에서 권리와 의무가 상호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이해한다.

활동과정 1

- ▶ 전체를 권리모둠과 의무모둠으로 나눈다.
- ▶ 권리모듬은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와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서 기술하고, 의무모듬은 법적인 의무와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적는다.
- ▶ 전체가 모여 제시된 권리와 의무 중 잘못된 권리와 의무내용에 대해서 토론한다.
- ▶ 지도자가 선진사회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우리문화와 관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토론을 유도한다.
- ▶ 서구선진국가 등에서 국가의 발전에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강의하고 종합적으로 토론한다.

활동과정 2

- ▶ 전체가 모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잘 제시된 영상자료를 감상한다.
 - 예시 : 전통이 숨쉬는 나라 영국
- 신사의 나라로 알려지고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의 역사와 풍물을 살펴보고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일반시민 속에 살아 숨쉬는가를 알아 본다. 또 영국 여왕의 탄신일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영국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여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가를 보여 주고 윈스턴 처칠의 생애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표현되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알아 본다. - KBS 제작, 92. 2 -
- ▶ 영상자료를 감상한 후,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평가한다.
 - ▶ 전체가 모여 종합토론 한 후, 지도자가 ‘서구사회의 권리와 의무’의 역사와 내용에 대해서 강의한다.

활동 2 모든 인간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사회는 평등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한 인간으로서 평생 살아가는데 있어 인간으로서의 차별과 별시를 받지 않을 평등권이 있다. 서구사회 구성원들은 인간의 능력차이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을 중요시하며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별적인 행동과 의식을 생활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 기본적인 터배는 인간으로서의 평등에 기초하고 있다. 서구사회의 평등이 의미하는 것과 그것이 생활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아본다.

활동방법

워크샷 및 게시

활동과정

- ▶ 5~7명으로 모둠을 나눈다. 그리고 각 모둠마다 주제와 역할극본을 준다
- ▶ 모둠별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역할연기를 한다.
- ▶ 각자 연기를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평등에 대해 설명한다.
- ▶ 지도자는 동양과 서양의 평등사상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평등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서 해석한다.

□ 예시 : ‘평등’ 역할연기 극본 개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격과 능력의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차이는 아니다. 이 차이는 개성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동물과 같은 원시생활시대에는 의식주에 관해서 개인의 능력차이는 힘과 기술이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한 생활방식은 존재했다.

힘센 이는 오늘도 늦잠을 자고 슬금슬금 움막을 나왔다. 창을 하나둘고 힘없는 이와 사냥을 가기로 했다. 움막에서 멀지 않은 숲속에 사슴이 부스럭 거렸다. 힘센 이가 재빠르게 사슴의 목을 겨냥하여 창을 던진 후, 사슴을 낚아챘다. 이렇

게 숲속을 돌아다니며 힘센 이는 그날 5마리의 사슴을 잡았다. 한편, 힘없는 이는 번번히 사냥감을 놓치고 오늘도 아무 것도 못잡고 움막으로 돌아왔다.

힘센 이는 움막에 돌아와서 불을 지펴 사슴을 구워 먹었다. 옆의 힘없는 이가 굶는 것이 안타까웠으나, 사슴은 나의 몫이었다. 다음 날, 힘센 이와 힘없는 이는 또 같이 사냥을 나갔으나 힘센 이만 고기를 잡아오고 힘 없는 이는 못잡았다. 저녁 무렵 힘센 이는 힘없는 이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며칠동안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자 힘센 이는 고기가 쌓였고 힘없는 이는 배가 점점 홀쭉해져갔다. 그런던 어느 날 힘센 이는 곰곰히 생각했다. 매일 쌓이는 고기를 지키기도 힘들었고 겨울에 먹기 위해 저장은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힘없는 이에게 제안을 했다. 힘없는 이가 고기를 지키고 저장해주면 일정량을 주기로 한 것이다. 그 이후로 힘센 이는 마음놓고 고기를 잡으러 다녔고, 힘 없는 이는 고기를 잘 간수하면서 배를 굶지 않았다.

이 극본은 인간은 불평등하게 탄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평등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와 동등하고 평등한 인격체로 인정해야만 자신의 삶의 보람과 일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것이다.

활동 3 참 자유를 얻는 법

자유는 계급화되어 가는 사회를 타파하는 주요한 이념이고 철학이었다. 철저한 자유정신은 서구사상의 기초가 되었으며 인류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서구의 청소년들은 자유롭다. 그들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가운데 생활에 온

힘을 전력하는 가운데 나온다. 결코 방종이 아닌 자유를 서구사회가 어떻게 지켜가고 있으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활동방법 게임 및 강의

활동과정 1

- ▶ 5~7명을 모둠으로 나누어 각 모둠마다 긴 끈을 하나씩 준다.
- ▶ 모듬원 모두가 끈으로 각자를 연결한다.
- ▶ 각 모듬별로 눈을 감고 지도자가 이끄는대로 걷는다.
- ▶ 끈을 풀고 사각형 공간을 만든후, 전체가 모여 원을 그리고 한 사람을 가운데 앉게 한다.
- ▶ 가운데 앉은 사람을 향해 모든 구성원들이 1분정도 손가락질을 한다.
- ▶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야기한 후, 그 사람이 다시 원 가운데로 들어가 눈을 감게하고 위를 쳐다보게 한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준다.
- ▶ 서서히 가운데 사람이 일어나게 한 후, 다같이 모여 음악에 맞추어 사각형 공간내에서 춤을 춘다.
- ▶ 각자 움직이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발을 밟은 사람은 퇴장시킨다.
- ▶ 참가자가 모두 모여 동양적 사고의 자유와 서양의 자유에 대해서 토론하고, 지도자가 ‘자유’에 관해서 설명한다.

활동과정 2

- ▶ 참가자가 모두 모여 서구사회의 자유정신을 잘 나타낸 영상자료를 감상한다.
- ▶ 영상자료를 감상한 후, 각자 아는대로 서구사회의 자유의지를 구현한 사상이 또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열거하고 그들의 자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한다.
- ▶ 모두 모여 가장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사상을 전파한 사람을 선정하고 그 사람과 비슷한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참가자를 투

표로 선택한다.

- ▶ 선택된 참가자의 생활방식과 철학을 듣는다.

활 동 4 평화만들기

평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인류 공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이념이다. 가난한 나라든 부자나라든 평화를 원한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평화만큼 국제관계에서의 공동이념은 없을 것이다.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인류공동의 노력을 이해하고 교류할 때만이 국제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일원으로서 넓은 세계를 조망하고 그 구석구석을 이끌어 나가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활동방법 위크샷 및 게임

- 활동과정 1
- ▶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인류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나열하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는다.
 - ▶ 전체가 모여 각 모둠에서 제시된 요소들 중 공통적인 것을 골라 ‘청소년 평화현장’을 만든다.
 - ▶ 작성된 ‘청소년 평화현장’을 상징하는 도형물을 각 모둠별로 고안한다.
 - ▶ 각 모둠별로 완성한 도형물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고, 그 도형물과 함께 평화현장을 우리나라의 지도층 인사 및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보낸다.

- 활동과정 2
- ▶ 모둠별로 의논하여 한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의상 및 장식을 한다.
 - ▶ 지도자는 ‘세계 평화만들기 청소년카페’라는 간판을 붙이고 음료수를 제공한다.
 - ▶ 다 함께 모여 각 모둠별 대표가 나와서 선정한 나라를 소개하는

연설을 하고 특기를 보여준다.

- ▶ 가장 잘 구성한 모둠에게 상을 주고, 모두 모여 평화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각국의 특이한 인사법을 모두 활용하여 서로 인사를 나눈다.

유의사항

- ▶ 지도자는 ‘민주’, ‘자유’, ‘평등’ 등의 개념이 선진 서구사회를 이끌어온 역사적 맥락과 그 개념을 이룬 철학적 바탕 및 생활신조 등이 참여 청소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준비하고 분석을 시도한다.
- ▶ ‘평등’의 단위프로그램 중 역할극본은 상황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각 단위에서 활용되는 영상자료는 너무 딱딱하지 않는 영상물로서 개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지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료로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 가능하다면 서구국가의 이념과 시민의식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국제교류활동에서 서구사회에 흐르는 사상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다.

도움자료

■ 자유

철학에서 강제에 대립하는 의미로, 때로는 필연에 대립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위를 의도적인 행위와 비의도적인 행위로 구별했다. 비의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강제로 한 행위와 모르고 한 행위이다. 그에 반해 의도적인 행위는 행위를 움직이는 원리가 행위자 자신 속에 있으며 그 행위의 개별적 상황을 행위자가 완전히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루소는 자유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지니는 속성이며 오직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은 프랑스 혁명 당시 ‘인권선언’ 제 4항 “자유는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한다”로 결실을 맺는다. 인격의 자유는 자신의 사유 재산권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 평등

개인과 개인 사이 또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 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 남녀의 평등, 국가 사이의 평등, 인종 종족간의 평등 등을 구체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평등은 자유의 관념과 함께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관념의 하나이다.

근대의 평등관념의 발달은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이른바, ‘자연적 평등’의 관념이 17과 18세기 홉스, 로크, 루소 등 사회계약론자들이 주장하면서 비롯된다. 시민계급은 이 사상을 근거로 신분제적 봉건적 지배질서 밑에 있던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각 개인의 동의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정부 아래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확립했으며 이것은 근대국가의 기원이다.

근대국가의 성립과 동시에 문제가 된 것은 정치적 평등과 재산의 평등이었다. 그 중 정치적 평등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남녀 보통평등선거권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해결을 보았고, 재산의 평등은 맑스, 엥겔스 등 19세기 중엽부터 나타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이 소수자의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불평등을 가져오는 원인이라 하여 자본주의적 생산방법과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국민 전체가 생산에 참가하고 그 성과를 국민 전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주장하고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소련이라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됨으로써 그 이념적인 실현을 보았다고 할 수 있으나 결국은 그 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19세기 말 이래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평등의 관념은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확충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여기에는 자유경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소득의 재분배정책에 의해 부의 불평등에 대한 시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 민주주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형태로서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와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로서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현대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다수지배의 원칙에 따라 전체 시민에 의하여 행사되는 통치형태로서 흔히 ‘직접 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다. 둘째,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일반 시민들이 선출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행사되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이고 셋째,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반 요소와 더불어 시민들이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제한이 마련되고 있는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적 민주주의’, 넷째, 사유재산의 불공정한 분배에서 파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정치적 사회적 체제로서의 민주주의’이다.

■ 평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세상이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서양 그리스도교 문명권에서는 평화가 정의의 실현,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질서유지라는 정치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띠었고, 중국의 예기에는 권력을 독점하는 자가 없고 평등하며 재화가 공유되고 생활이 보장되며 각자가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범죄가 없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평화의 개념을 사회정의에서 찾으며, 평화는 크게 국가적인 평화와 국제적인 평화로 나누는데, 국가적인 평화는 자본주의 민주국가의 정치적 이상인 사회정의의 실현을 통한 국민들의 정치 사회 경제의 안

녕과 안정을 꾀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평화는 국가간의 갈등,
분쟁,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브리태니카 세계 대백과사전, 1993)

봉사로 세계를

개요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청소년의 순수한 사랑과 정신을 봉사활동으로 구체화하여 세계화시대의 동반자인 후진국가에 실천적인 인류애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의 청소년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폭넓은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정립한다.

목적 선진국 청소년을 염두에 두고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우리 보다 뒤떨어져 있는 국가의 청소년을 위한 인류애의 정신을 펼쳐나가야 한다. 국제인의 의무인 인류사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봉사의 마음가짐과 실천적 활동은 국제교류의 훌륭한 도구가 된다.

활동 1 등잔밑에 밝은 불을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불우한 이웃을 보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불행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우선 우리의 복지현실을 파악하여 청소년으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한 실행해 봄으로써 봉사활동을 생활속에 내재화하여 국제교류활동의 기회를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봉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활동방법 실행, 강의 및 토론

- 활동과정 1
- ▶ 2~3인 씩 모둠을 구성해 불우한 이웃이 사는 지역을 탐방하거나 복지시설을 방문한다.
 - ▶ 정해진 시간에 모여 모둠별로 간단히 방문기를 적는다.
 - ▶ 함께 모여 방문한 지역이나 시설에서 느낀 점을 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 ▶ 필요한 물품이나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 ▶ 전체 참가인원이 선정된 장소를 방문한다.

활동과정 2

- ▶ 모두 모여 각자 우리 주변의 이웃 중 가장 불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지역을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 한 사람씩 설명한 것을 토대로 가장 불우한 이웃을 선정한다.
- ▶ 참가자 또는 강사를 초빙하여 선정한 불우이웃의 현황과 돕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다.

활 동 2 우리 함께 일해요

불과 30여년 전만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유학길에 올랐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소위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3D업종에 종사하였다. 그 나라 국민들이 힘들어서 기피하는 위험하고 고된 직업을 마다하지 않고 후진국 국민의 설움을 참아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에 후진국 근로자들이 와서 우리가 기피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속에서 땀흘리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은 인간미가 넘치는 국제인이 되는 첫걸음이다.

활동방법

게시 및 워크샷 또는 역할연기

활동과정 1

- ▶ 참가자 모두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외국인 근로자가 쓴 수기나 그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글을 읽는다.

- ▶ 모둠별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과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열거한다.
- ▶ 각 모둠별로 제시된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와 그들을 위한 봉사활동내용을 집약하여 게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을 토대로 ‘악덕기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주제로 모둠별로 역할극을 구성한다.
- ▶ 한 모둠씩 나와서 역할연기를 펼친다.
- ▶ 참가인원 모두 모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봉사활동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활동과정 2

- ▶ 불과 20~30년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외국에 나가 공부하면서 일하거나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일한 영상자료 등을 살펴본다.
- ▶ 그 중 가장 인상적인 자료를 선정하여 우리의 외국 근로자 처우 현실과 비교하여 토론한다.

활동 3 세계를 사랑으로

고통으로 얼룩진 전쟁속에서도 인류에는 피어난다. 적십자의 창시자인 앙리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피비린내나는 전장속에서 오직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적군과 아군에 관계없이 보살피 주었다. 무관심하게 하루 하루 생활하는 우리 주변에는 인종 및 종교 그리고 이념과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해 굶주리거나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일지도 모른다. 도처에 널려있는 전쟁의 흔적과 아직도 계속되는 전쟁과 갈등 그리고 재해속에서 고통받는 세계를 생각함으로써 선진사회만 바라보는 국제교류가 아닌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회를 감싸안을 줄 아는 여유와 인류를 위해 고뇌하는 마음가짐을 정립할 수 있다.

활동방법

게임

활동과정

- ▶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최근 신문과 잡지를 배포한다.
- ▶ 각 모둠별로 도화지에 세계지도를 그린다.
- ▶ 그려진 세계지도에 전쟁이나 굶주림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또는 지역에 신문이나 잡지의 내용을 오려 붙이거나 알고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
- ▶ 참가자들에게 세계각국의 민속음악을 들려주며 명상하게 한다. 그동안 지도자는 각 모둠의 세계지도를 모은 후, 그 내용을 분석하여 퀴즈로 만든다.
- ▶ 각 모둠이 모여 퀴즈내용을 풀고 가장 잘 풀 모둠에게 상을 준다.

활 동 3 개성있는 이웃 참된 봉사

봉사활동은 여러 종류가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재정적 후원을 해 줄 수도 있으며 근로봉사를 할 수도 있다. 어떤 봉사활동이든 가치가 있지만 자기의 형편과 역량에 맞지 않는 봉사활동은 자칫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못되고 부담만 줄 수 있다.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자기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발견함으로써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방법

현장실습

활동과정

- ▶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 내용목록을 작성하여 참가인원들에게 제시하면, 각자 원하는 봉사활동을 하나씩 고른다.
- ▶ 같은 유형의 봉사활동을 선택한 참가자들을 모둠별로 나눈다.

- ▶ 모둠별로 봉사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자원봉사활동 현장을 선정한다.
- ▶ 모둠별로 각 분야를 담당하여 봉사활동을 하며 모둠의 대표가 봉사활동내용을 기록한다.
- ▶ 전체가 모여 모둠별로 진행한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록된 내용을 서로 교환한다.

유의사항

- ▶ 세계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사전에 다양하고 풍부한 세계정세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 ▶ 우리가 외국에 나가 힘든 일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른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인 것이다.
- ▶ 자기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을 선택하는 순서에서는 청소년들의 간단한 적성 및 인성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 ▶ 퀴즈게임을 진행할 때는 분쟁지역 또는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 대한 많은 지식보다는 답을 맞힌 모둠에게 국제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청소년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여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 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할 때 선정부터 방문, 평가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도움자료

■ 외국인 근로자가 갖고 있는 문제

- ① 말이 통하지 않는다
- ②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문화와 관습을 이해해 주지 않

는다.

- ③ 한국 근로자와 차별대우가 아주 심하다.
- ④ 외국인 근로자를 값싼 기계로만 생각하고 있다.
- ⑤ 임금을 제 때에 지불하지 않는다. 3D에다 “delayed salary”라는 말과 함께 4D가 되었다.
- ⑥ 폭행이 심하다. 한국인들의 욕설은 동남아에서 국제어가 되었다.

■ 외국인 근로자의 현실 — 아내가 남긴 금반지

화리다 나타나는 올해 나이 서른 한 살. 1995년 4월, 그녀는 남편을 쫓아 말로만 들던 한국 땅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0일, 이 세상을 떠났다.

만수올 알리와 화리다 나타나는 파키스탄 사람이며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이었다. 둘은 결혼 후 계속되는 가난 속에서 많은 돈을 빚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 가면 빠른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의 돈을 빌려 5남매를 파키스탄에 남겨둔 채 남편 만수올과 94년 4월에 한국땅에 왔다. 그들이 진 빚은 미화로 10,000불. 두 부부는 열심히 일했고 95년 10월에는 남은 빚이 1,000불 정도였다.

그날은 95년 10월 10일이었다. 사흘 후인 14일에 화리다는 남편 만수올 보다 몇 달 먼저 귀국할 예정이었다. 올해 5살인 넷째 딸의 흥부에 혹이 생겨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그래도 둘은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있는 아이들과 친척들의 선물을 샀다. 이제 사흘 뒤면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화리다의 마음은 설렌다. 비록 머나먼 한국땅까지 와서도 큰 돈은 못 벌어가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파키스탄에 돌아가면 더 열심히 살리라! 만수올은 평소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죽도록 고생만 하는 아내를 항상 측은히 여기던 중 그날 아내에게 종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선물했다. 둘의 결혼생활 12년 만에 처음으로 갖게 된 금불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리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파키스탄 친구인 하미드에게 빌려준 800불 가운데 600불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었다. 저녁을 맛있게 먹은 탓일까. 화리다는 소변이 보고 싶어서 주변을 둘러 보았지만 화장실은 눈에 띄지 않았고 마침 길 건너 편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어 그 차 뒤에서 소변을 해결할 생각으로 길을 건넜다. 그러나 중앙선을 막 지날 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에 그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고 그 일은 만수울과 화리다 부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제 사흘만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빚 갚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얼마 안되는 보험금으로 병원비와 시신 운구비를 제하고 이제 만수울에게 남은 것은 고향에 남겨진 다섯 남매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잃은 아내에 대한 쓰라린 기억 뿐이다. 먼 타국에 와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입고 망연자실해 있는 만수울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 주어야 하나? 그의 손가락에는 아내 화리다에게 끼워 주었던 3돈짜리 금반지만이 남아 있다. (천주교 서울 주교, 1995. 11. 12)

■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봉사활동내용

- ① 필요한 물건 (옷, 주방기구, 가구) 수집 및 제공
- ② 영 유아를 위한 탁아 프로그램보조
- ③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실시
- ④ 의형제 맺기
- ⑤ 사회복지단체 및 활동소개
- ⑥ 생일날과 명절날 초대

(한양대 사회봉사단, 1995)

마치면서

두통이의 8일간의 세계일주

두통이의 8일간의 세계일주

두통이는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행도 해보았고 국제교류와 국제인이 되기 위한 교육도 철저히 단계적으로 받았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때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방송반에서 해외여행감상기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의 전화였습니다. 두통이는 쾌히 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일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되는 세계화와 국제화 그리고 외국의 소식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생각해 보니 두통이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이 가깝게 피부로 와 닿았고 무언지 모르지만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준비했으며 어떻게 다녀왔는지 비록 해외여행이라고는 삼촌이 살고 계신 캐나다밖에 다녀오지 못했어도 두통이는 마치 세계일주를 한 것처럼 외국을 생각하면 하늘에 봉 떠있는 기분입니다. 이처럼 좋은 기분을 만끽하고 싶어 두통이는 봉태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구봉태 우리 농구하러가자” 봉태는 역시 좋은 친구입니다. 언제 전화해도 두통이의 제안을 거절하는 법이 없거든요. 든든히 점심을 먹고 두통이는 시계를 봅니다. 아직 봉태하고 만나기로 한 시간은 2시간 가량 남았습니다. ‘뭐 할까’ 고민하다 다시 그동안 경험했던 수련거리들을 펼칩니다. 그런데 두 쪽을 읽어 나가자 두통이는 몽롱해지는 정신을 가다듬을 길이 없습니다. 기분이 좋아 꿈속으로 빠져듭니다. 꿈 속의 여행은 신납니다. 두통이는 마음과 꿈의 여행을 떠납니다.

첫째 날

예전에 읽었던 장 그르니에의 ‘섬’ 한 구절이 소리가 되어 스쳐갔다.

“누군가가 묻는다. 여행이란 왜 하는 것인가하고. 언제나 어떤 완전한 힘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일상의 삶 속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여러가지 감성들을 일깨우는 데 필요한 자극제일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럴 때 한 달이고 일 년이고 몇가지 진귀한 감각들을 체험해 보고 싶어서 여행을 하는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 갔다. 우리나라와 모든 것이 참 비슷했다. 생긴 모습과 건물 그리고 길 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측통행이었다. 많이 헛갈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깐 그냥 적응이 됐다. 우

리나라의 거리보다 깨끗했지만 질퍽한 정은 느낄 수 없는 땅이었다. 비싼 물가때문에 주눅이 들었다. 참, 일본은 교회의 십자가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음악과 광경이 익숙했다. 너무 비슷한 일본과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했다. 우리만큼 한국에 대해 덜 긴장하고 예민한 일본사람들을 볼 때 좀 더 어른들이 냉정하고 우리도 차분해져야겠다고 느꼈다. 구경보다는 걸으면서도 생각을 많이 했다. 일본과 우리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일본에서 느끼는 현실이 그런가 보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일본과 한국의 상념들. 그냥 마음이 허얇고 무거운 상태로 출발했다. 첫 여행을 안내해 준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하려 했더니 봉태가 나타나 충고한다. 일본사람들은 짝으로 된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므로 선물을 짝으로 된 것을 주면 더 좋아 할 걸...

둘째 날

대북 공항에는 명동에서 인상깊게 보았던 대만국기가 가득 꽂혀 있었다. 붉은 색을 좋아하는 민족. 대북시내로 들어가는 순간, 실망이 앞섰다. 예전에 TV에서 많이 보았던 낡은 집들과 건물들이 시내 북판에 버젓이 있었다. 이상하다. 우리 보다 훨씬 잘 사는 줄 알고 있는데... 박물관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데 차속을 뚫고 사이사이 사람들이 불법횡단을 한다. 저기서 교통경관이 눈을 뜨고 보는데, 저 사람들 모두 다 잡혀서 벌금고지서를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문화민족의 국민아닌가? 신호가 바뀌어 길을 건너후 호뭇한 마음으로 걸었다. 박물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서자 귀여운 어린이가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고 빙긋 웃자 멀리서 보고 있던 어린이 엄마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와서 투덜댄다. 나 원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 칭찬도 못하나 생각하다 아차 싶었다. 그래 동남아권에서는 아이들 머리를 만지면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한다는 사실... 그리고 태국에서도 머리를 신성시하므로 머리 만지는 것은 금물. 사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가 마찬가지이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다음, 너무 엄청난 중국의 보물들을 냅을 놓고 보았다. 깔끔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대만이지만 시장의 정경은 푸근하고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무척 편안하게 느껴졌다.

셋째 날

비행기는 홍콩 상공을 날고 있었다.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다. 홍콩을 다니실 때 마다 중국본토가 생각나고 중국을 떠올릴 때마다 북한동포가 머리속에 아른거렸다는 말씀에서 옛날 홍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했다. 그리고 홍콩에서 시계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선물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홍콩은 도시와 섬사이에 화려한 불빛만이 아른거렸다. 자유무역항인 홍콩, 홍콩영화 속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도시중심가 속으로 내리지도 못하고 나는 어느새 중국 대륙을 넘고 있었다.

중국은 큰 땅이다. 또 우리와는 가장 가까운 땅이다. 북한을 포함한 우리국토와 가장 많은 땅으로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천안문 앞에 서서 모택동의 초상을 보았다.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던 공산당의 총수가 머리가 벗겨진 모습씨 좋은 할아버지로 보인다.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무척 고팠다. 음식점을 찾았다. 짜장면이나 한그릇 딱딱해야지 두리번 거리는데 길건너에 한자로 00飯店이라는 상호가 보였다. 저기다. 신속히 걸음을 옮기며 음식점에 들어섰는데 아이구 음식점이 아니라 숙박하는 여관이였다. 물론 음식도 팔기는 하지만... 알아둘 것. 大飯店은 Hotel, 太平門은 비상구, 汽車는 자동차 등등... 조선족이 많이 모여사는 길림성을 방문했다. 강한 이북사투리의 억양이 생소하긴 하지만 투박한 시골사람들 모습에서 정감을 느꼈다. 그런데 어설픈 시골의 중심가처럼 다방, 노래방, 술집, 옷가게 등이 왜 그리 많은지! 아직도 계란을 삶아 먼길 떠나는 나에게 주는 아주머니의 순박한 인심속에 각박한 물질들이 스며들고 있다. 퇴폐적이 아닌 생활화된 가무를 보며 우리 역사속의 조상을 느꼈다.

기차길은 가슴을 타고 베트남으로 이어져 있다. 평화를 지키다가 돌아온 우리 아버지 아저씨들이 무색하게 이제는 서로 여행도 하고 장사도 한단다. 길거리를 덮는 자전거 행렬속에서 같은 반도국가인 우리와 같은 지리적 환경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킨 국민들을 본다. 가끔씩 보이는 우리 눈과 너무 같은 혼혈인을 보며 야릇한 감정을 갖는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베트남 청소년은 나의 여행이 사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굳은 다짐을 하도록 만든다.

넷째 날

나는 열기구를 타고 벌써 터키에 도착해 있었다. 오스만제국의 영광이 살아있는 터키, 자존심의 나라 터키에서 미국의 팽송이 성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

며 생각했다. 부자는 아니지만 민족적 자부심과 정열로 뭉쳐있는 터키의 청소년들. 그들을 뒤로 하고 파라오의 나라 이집트로 날아갔다. 생각보다 훨씬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 피라밋 앞에서 찢듯이처럼 불어다니는 관광상품 판매원들을 보며 옛 아랍의 영광과 자취는 역사와 책속에 있음을 느낀다.

또 날았다. 아프리카의 열대림과 광활하게 뿔려있는 사막들 속을 다니며 우리와 똑같은 청소년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현장을 보았다. 그들은 뼈마저가 늘어진 피부밖으로 뻗은 눈만 반짝거리며 물었다.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났지. 말해주렴. 가슴찢어지는 아픔뒤에는 철난 어른들이 배 두들기며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들을 보며 갑자기 흑인음악이 생각났다. 갱스터 랩, 흑인영가에서 울부짖으며 세계 대중음악을 주도하는 그들의 영혼은 우유 한모금 없이 말라 죽어가는 육체로 변하고 있었다.

다섯째 날

우울한 마음으로 도착한 프랑스는 촉촉히 비에 젖어 있었다. 파리의 명물인 에펠탑이 웬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센강변을 따라 도착한 미술관은 환상적이었다. 그 유명한 고흐의 그림부터 세잔느 그리고 램브란트 등의 원본을 루브르박물관을 기점으로 무수히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프랑스 청소년들이 부러웠다. 낭만의 도시 파리는 인상적이었지만 우리나라 여느 관광도시를 연상케하는 냄새가 풍겼다. 너무 관광자원이 많아서 일까? 무던히도 동물을 좋아하는 파리인들 덕분에 거리에서 개똥을 밟았다. 식당밖에 있는 의자에 앉았는데, 주문하지 않았으면 일어서라는 야박함속에서 파리의 아름다움은 묻혀져 갔다. 나는 역시 한국사람인가 보다. 인정이 많고 활기찬 우리나라가 보고 싶다. 이제 프랑스는 독일의 숲에 묻혀 내 속에서 멀어져갔다. 독일의 찬공기는 생각보다 기분을 편하게 했다. 독일은 조용했다. 그리고 친절했다. 그리고 프랑스 차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독일 차들은 깨끗했다. 라인강의 줄기는 천천히 여유있게 흐르며 대학생과 시민을 한 곳으로 묶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독일의 수도 본을 떠나 점점이 사각모양의 푸른 목초가 눈앞에 다가오는 안개의 나라 영국으로 향했다. 지는 해와 같다는 영국의 이미지와는 달리 넓은 들과파라 찢들어 있지 않은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유명한 양대 대학인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영국에서도 부러운 것은 장서가 500만권이 넘는다는 옥스퍼드 대학의 도서관이었다. 그런데 옥스퍼드에서 버스로 시내관광을 하고 보니 속았다는 느낌이다. 생각보다 큰 도

시가 아니어서 걸어다녀도 되었는데... 여하튼 다시 프랑스에 가서 개선문 앞에
섰다. 물론 우리의 남대문과는 다르지만 남대문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문이 아닌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문이라는 자연스러움이 있어 부러웠다. 물론 통제구역도 있
지만...

여섯째 날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서 다른 유럽 청소년들은 다 통과시켜 주는데 나를 붙
잡고 여권검사를 했다. 나는 “천천히 말해주세요. Please speak slowly”라고 하
자 검사원은 씩 웃으며

검사원 : 좋습니다. 왜 당신의 여권에는 비자가 없습니까?

O.K. Why you do not get your passport visaed?

나 : 나는 한국인은 비자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 am sure that it is not necessary for Koreans to get a visa.

검사원 : 아니요.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No. You should get it.

나 : 2개월이내에는 비자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 can travel in this country without a visa for two months.

검사원 : 미안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여행하는 목적이 무엇
입니까?

I am sorry. I understand it. What is the purpose of your trip?

나 : 관광하러 왔습니다.

Just traveling. (sightseeing)

검사원 : 얼마나 계실 예정이시죠?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나 : 약 2주일 정도요.

I will stay for 2 weeks.

검사원 : 혹시 위험한 물건 또는 마약이나 식품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Do you have any dangerous things, drugs, foods, or anything?

나 : 없습니다.

Nothing.

점사원 : 감사합니다.

Thank you.

스페인이 투우와 플라멩고의 정열로 뭉친 성격이 급한 국민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편견은 바로셀로나에 있는 Sagrada Familia라는 교회건물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스페인의 19세기 천재 조각가인 안토니오 가우디의 일생의 역작인 이 교회는 1884년에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200년은 더 걸려야 완성된다고 한다.

일곱째 날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떠났다. 풍랑도 만나고 멀미도 했다. 먼 옛날 청교도들의 모험과 희망과 꿈 보다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 뉴욕이 눈앞에 보였다. 우스꽝스럽게 웃입혀지는 자유의 여신상도 파리의 그것보다 훨씬 멋있어 보였지만 엉망진창인 뉴욕지하철에서 나는 무조건 한국을 무질서하고 공중도덕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곳으로 스스로 매도하는 어른들을 한심하게 상상했다. 미국은 꼬끼리였다. 그들은 영어를 잘했다. 생각보다 검소했다. 이상하게 그곳에서 봉태를 만났다. 반가웠다. 밤새 공원과 할리우드를 돌아다니다 점잖게 모텔에 차를 세웠다. “아저씨 방하나만 주세요.” 그러자 아저씨는 이상한 사람 보듯이 바라본다. 방이 있어도 남자 둘은 한 방에서 못재워준단다. 아이고. 동성애가 만만치 않은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는 기겁을 하고 나와서 서로 바라보고 한바탕 웃었다. 내가 너하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공원에서 쓰러져 잤다.

미국은 껌데기만 날아와 우리에게 있었다. 미국 땅은 넓었다. 건강한 국민속에 비열하고 쓰디쓴 사람들만 우리곁에서 보여진 것 같았다. 미국의 가운데는 엄격한 가정과 성실한 가정이 항상 있었다.

마지막 날

자꾸 꿈에서 깨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 꿈이라는 생각이 안타깝다. 미국을 떠난 나의 몸은 이미 멕시코의 복판에서 춤추고 있었다. 멕시코. 미국의 범죄자들이 도피하고 싶었던 못난 이상향쯤으로 나의 눈 속에서 취급당했던 멕시코는 풍부한 물자와 인정이 넘치는 나라였다. 싼 물가, 엄청난 양의 해산물 그리고 선하지만 자존심 강해 보이는 얼굴들과 널려있는 유적지들 모두가 마음에 들었다. 꿈

속의 봉태를 불러 원주민과 사진을 한장 기념으로 찍으려는데 막무가내로 도망간다. 아니 왜 그럴까? 아차 멕시코 인디언들은 사진을 찍으면 혼을 빼간다고 생각한단지, 미안해요. 봉태와 함께 어울리다가 다시 칠레를 건너 이미 나는 러시아의 변혁의 물결에 서있었다. 다음 날 빵을 사러 오기 위해 빵 배급소에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 그 모순의 이유속에서 러시아는 강대국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무기를 고철로 팔고 있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청소년들은 참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 험한 세계를 돌아다녀도 아직도 상상할 수 없는 북한의 시골에는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았던 고향의 초가와 흙내음이 폴폴이 풍겨오고 있었다. 국제교류의 끝은 그 너머에...

두통이는 꿈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부딪쳐 보기로 결심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청소년으로서 세계 어디를 가든 떳떳하며 부드럽고 명확한 태도와 인정어린 자세로 행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참고 문헌

- 강무섭 외(1987),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전략, 한국교육개발원.
- 구미래(1992),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 구인환(1993), 고교생이 알아야 할 고전, 신원문화사.
- 구인환(1993), 고교생이 알아야 할 소설 2, 신원문화사.
- 구인환(1993), 고교생이 알아야 할 소설 3, 신원문화사.
- 구인환(1993), 고교생이 알아야 할 소설 4, 신원문화사.
- 국어교사모임(1990),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소설 2, 푸른나무.
- 김대환(1993), 한국인의 자기발견, 김영사.
- 김성호(1995), 젊은 여행자들 — 유럽, 학생여행문화센터.
- 김세광(1994), 품위있는 해외여행, 한뜻.
- 김순은(1993),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효과적 추진방향, 부산직할시정연구.
- 김영돈(1995), 젊은 여행자들, 학생여행문화센터.
- 김영중(1995), 역사신문 1, 사계절.
- 김지현(1995), MUSEUM GUIDE, El Camino.
- 김태형 외 2인(1994), 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 1, 문원각.
- 노웅희 외 1인(1994), 교실밖 지리여행, 사계절.
- 뉴턴하이라이트(1994), NEWTON 아시아 1, 계몽사.
- 뉴턴하이라이트(1994), NEWTON 아메리카, 계몽사.
- 뉴턴하이라이트(1994), NEWTON 아시아 2, 계몽사.
- 뉴턴하이라이트(1994), NEWTON 오세아니아 외, 계몽사.
- 뉴턴하이라이트(1994), NEWTON 유럽 1, 계몽사.
- 뉴턴하이라이트(1994), NEWTON 유럽 2, 계몽사.
- 데이비드 편, 정준모 역(1993), 미술관 관람의 길잡이, 시공사.
- 등지기획팀역음(1994), 해외여행 출국에서 귀국까지, 도서출판 등지.
- 마이클 H. 하트, 김평옥 역(1993),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 에디터.
- 문승준 외(1992), 우리소설 50선, 성림.
- 민경대(1993), 강릉대학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강릉대학생활연구.
- 박영숙 외 1인(1987), 초·중등교육 국제비교, 한국교육개발원.

박현제(1995), 배낭메고 세계로 - 유럽편, 솔빛조선미디어.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1993),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삼성복지재단(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청소년학술세미나자료, 삼성복지재단

서울특별시 국제교류과 편(1991), 국제교류개요, 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국제교류과.

손효원(1995), 젊은 여행자들 - 아시아, 학생여행문화센터.

안청시 외(1987),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집문당.

유네스코(1982), 국제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1985), 국제 이해교육 발전계획 연구, 유네스코.

유네스코(1986), 국제 이해교육 연구활동 추진계획, 유네스코.

유네스코(1987), 국제 이해교육 현장보고서, 유네스코.

유진(1988), 청소년 국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청협.

유흥준(1993),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창작과 비평사.

윤재현(1989), 배낭족 이야기, 햇빛출판사.

윤정국 외(1994), 명저의 고향, 비룡소.

이경복(1995), 겨레여 생각이여 말이여, 고려원.

이남주(1985), 청소년 단체활동과 국제교류, 국회보.

이만갑(1987), “교육의 국제교류 ; 한국적 시각에서”, 국제학술대회논문집.

이은제(199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활성화방안, 지방행정.

이주현(1995),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체험 2, 학교재.

이택희(1980),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이해교육 실태조사연구”, 논문집 제 15집, 서울교육대학.

이학중(1992), 국제교류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대학교육.

임영재(1990), 대학의 국제교류 실태와 문제점 ; 대학교육과 국제교류, 대학교육.

임현국(1994), 해외여행의 길잡이, 백산출판사.

전국재(1988), 캠핑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엠마오.

정문현(1994), 해외여행에 필요한 건강정보, 을지서적.

정진홍(1994), 세계종교문화기행 신을 찾아 인간을 찾아, 집문당.

진경환 외(1994), 고전문학 이야기주머니, 녹두.

진인권(1991), 세계 여러나라의 사회교육, 법문출판사.
 차광선(1990), 청소년단체 국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청협.
 최유림(1989), 넓은 세상을 왜 좁게 사나, 유림문화사.
 추적 편저(1995), 명심보감, 성균관출판부.
 통일원(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통일원.
 한국고대사문제연구소(1994), 한국역사기행, 형설출판사.
 한국여행인클럽(1992), 여행 여행인, 백문사.
 한영우(1988), 한국의 문화전통, 을유문화사.
 한영환(1987), “개방 국제화 사회에 대응한 교육”, 미래사회 변화와 한국 교육
 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5주년 기념세미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해외배낭여행동아리(1994), 갈광질팡 뒤죽박죽 허겁지겁, 민서출판사.
 홍사명(1987), 국제교류효과의 분석적 고찰 ; 국제화시대와 교육정책, 국회보.
 홍일식(1993), 21세기와 한국전통문화, 현대문학.
 Abraham, M. J., 이재구 역(1975), 교실에서의 세계문화.
 Kenneth, C. Davis, 이희재 역(1994),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세계지리, 고려원
 미디어.
 Lauwerys, J. A.(1974), 국제 이해교육 지침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